

# 사회과학논문집

---

사협결성 45돐기념 특집호

제 17 호

2004년 8월

---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 사회과학논문집

---

사협결성 45 돌기념 특집호

제 17 호

# 차 례

[좌담회]	1~18
-------	------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의 역사적의의와  
새 세대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역할》

[시험 제 17 차 대회소식]	19~27
------------------	-------

[16 기 활동소식]	28~32
-------------	-------

[연구토론회]	33~66
---------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 돌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론 문]	67~107
-------	--------

《여론》에 대한 정치학적리해

일본유물론철학연구사에 있어서의 田中吉六의  
《주체적유물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조선의 지리적조건에 대한 몇가지 평가

조선의 귀신담에 대한 연구

##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의 력사적의의와 새 세대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 발언자

김화효(사협중앙 회장)

신영근(조선대학교 교육학부 교원, 민족교육협의회 사무국)

박재훈(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원, 새 세대문제협의회 사무국장)

리병휘(조선대학교 교무부 교원, 새 세대문제협의회 사무국)

### 사회자

금기철(사협 중앙상임리사, 조선신보사 잡지《이어》편집장)

### 사회자

: 이제부터 사협결성 45 뉘에  
즈음하여 《총련 20 차 전체대  
회의 력사적의의와 새 세대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역할》  
이라는 췌마로 좌담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협중앙의 김화효회  
장, 그리고 새 세대 사회과학  
자를 대표하여 조선대학교의  
선생님들이 참가하고있습니다.

20 전대회가 진행된지 3 일 후에 이와 같은 췌마로 좌담회를 하  
자니 부족한 점도 있으나 민족교육, 새 세대 문제를 중심으로  
20전대회결정관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거기서 우리 사회과학자  
들이 어떤 역할을 놀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  
을 교환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 전대회에 참가한 소감에 대하여 김화효회장부터 이야  
기해주십시오.





## 김화효



: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8일, 29일 량 일간에 걸쳐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가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대회에 참가하여 느낀 소감을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회가 일심단결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되었다는것입니다.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정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환경이 마련된 력사적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 년간 총련은 결성 이래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조은의 파탄,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강제수색과 고정자산세의 파세, 우리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련달아 일어났습니다. 지난 1 년 8 개월간에 걸치는 광란적인 일본 언론매체들에 의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사람들속에 대조선인감정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조선사람을 업신여기고 배척하려는 배타주의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조국에서는 2002 년에 《고난의 행군》을 결속시켰지만 일본에서는 지금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듯 하였습니다.

일부 동포들속에서는 대회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동포들의 머리우에 덮인 먹구름이 가셔지고 과거 반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밝은 전망이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회를 앞둔 5월 22일 일본 고이즈미총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 조국을 방문케 하시고 수뇌자회담을 통하여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국교정상화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었습니다. 회담에서 고이즈미총리는 재일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할데 대하여 확약하고 20 전대회앞으로 일본자민당 총제명의로 축하메세지를 보내주었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대회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크게 호전하였습니다.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잇닿아있다는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재일동포치고 과거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온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정부성명을 내고 우리를 강력히 지켜준것은 다름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덕택으로 우리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감은 둘째로, 총련중앙이 상당히 정간화되고 새 세대 일군들이 중요한 모퉁이를 맡게 되었다는것입니다.

대회에서는 40 대 전반기의 부의장을 비롯하여 젊은 상임들이 많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서 이제부터 키우는 사람이라기보다 실천속에서 이미 많이 단련되어 즉전력(즉전력(猝戰力))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총련중앙에서는 이미전부터 세대교체문제에 대하여 강조해왔는데 만족하게 다 된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는 부문에서 훌륭한 인재가 자라나고 있다는것을 느끼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셋째로, 느낀것은 대회보고의 《동포사회건설을 위한 3년간의 과업》부문과 토론을 들으면서 21 세기의 총련조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모습이 점차 명확하게 안겨오게 되었다는것입니다.

토론에서는 민족성고수문제, 고령자개호문제, 년금문제, 보험문제, 동포들의 권리옹호문제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모든 토론들이 감동적이었으나 특히 저는 총련효고관하 세이방초급학교선생의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토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성을 심어주는데서 우리 학교가 기본이고 초급학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초급부 저학년생에게 우리 민요와 고저장단을 가르쳐주어야 어릴 때부터 민족성을 몸에 배이게 할수 있다는것을 선생님의 교육체험을 들으면서 저역시 그렇다고 확신하였습니다.

##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가 진행된 역사적배경**

사회자

: 이번 대회보고에서는 《우리 앞에 조국광복과 총련결성이래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제가 실현되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와 단계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라고 지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열린 역사적배경 즉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앞으로의 과업을 생각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단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역사적 배경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주시시오.

#### 리병휘

: 20 전대회를 앞두고 고이즈미총리의 2 번째 조선방문이 있었으며 9.17 이후 1년 8개월간의 조일간 랭각상태가 풀릴 전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일관계의 진전은 조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문제에서 수렁에 빠져있고 전쟁개시초기의 일국행동주의를 궤도수정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있는 정황속에서 동북아시아(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다국간협조와 외교적해결의 틀을 중요시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 보다 안정해진 로무현정권의 대북정책과 고이즈미정권의 조미간중개의 역할에 의하여 핵문제의 군사적인 《해결》이라는 선택지는 가능성을 잃어나갈것이며 미국정부도 현실에 립각한 정책수정을 피하지 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밝은 전망을 예고해줍니다.

특히 이번 조일수뇌자회담에서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해 앞으로 우호적으로 대응할데 대한 고이즈미총리의 생각이 전달되었고 그 취지는 20전대회앞으로 보내온 축하메세지속에서도 천명되었습니다. 방금 김화효회장이 지적하신대로 총련결성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던 최근 몇년간의 정황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시간축을 넓혀서 생각한다면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발생한 재일조선인문제의 역사적과제가 해결되어가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광복후 반세기이상에 걸쳐 재일조선인문제를 포함한 식민지통치

의통치의 부의 유산이 방치되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조선민족의 탈식민지화의 요구와 운동이 미국의 랭전정책에 의하여 좌절되었다는 경위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랭전정책은 일본군국주의와 남조선의 친일파세력을 온존하면서 반공동맹체제를 구축, 유지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식민지주의적인 요소가 온존되고 탈식민지화의 요구가 탄압되는 일그러진 상황에 의해 재일동포들은 계속되는 배타주의적정황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으며 조국의 분단체제는 우리의 내면에까지 침투되어 지리적인 리산뿐아니라 심리적인 분단이 강요되어왔습니다. 식민지주의의 연속성우에 남북분단이라는 랭전시대의 모순이 겹쌓이면서 재일동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왔습니다.

이번 20전대회방침은 《새로운 단계》를 강조하고있는데 이것은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잡는 새로운 단계, 또한 식민지시대와 랭전시대라는 역사성을 극복한 다음의 단계에서의 우리 운동의 모습을 의식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 신영근



: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민족의 주체적힘에 의하여 조미의 대결구도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가고있다는것이며 그에 련동하여 북남관계, 조일관계를 비롯한 정치적장벽들이 가속도적으로 해결

되어가고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병휘선생이 이야기한것처럼 재일조선인운동은 다른 민족들의 해외교포운동과는 차이나는 《독특한 사정》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우리 운동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규정하고있었는데 그와 같은 특수성의 원인으로 되어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가망성이 나타남으로 하여 우리 운동이 해외교포운동으로서의 원점에 돌아설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박재훈

: 새로운 시대와 단계라고 할 때 조미, 조일관계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남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북남관계의 전진은 조미, 《한》미관계에 크게 좌우되었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다방면적인 북남교류가 벌어지고 그 성과가 축적됨으로써 북남관계가 이제는 조미, 《한》미관계에 의해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미, 조일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동적인 역할을 노는 단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북남관계의 질적변화는 재일동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북남의 통일로로의 움직임은 재일동포들이 감수해야 했던 일본 정부의 과거청산문제방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것이며 재일동포들에게 새로운 활동무대가 펼쳐지는 기회가 마련된다는것입니다.

## 김화효

: 총련 20 전대회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정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환경이 마련된 력사적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선군령도아래 주체위업은 세기를 이어 진행되어온 조미대결을 총결산하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반미의 무풍지대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을 받고있던 남조선에서 반미구호가 나오고 오늘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들게 되었으니 6.15 공동선언 발표이전과 이후의 사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조국과 총련을 둘러싼 정세의 전환적국면이 열린다는것을 전망하면서 앞으로 3년간의 활동방침과 과업을 책정하였습니다.

## 사회자

: 5 월 22 일 조일수뇌자회담에서는 서로가 조일평양선언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일평양선언의 리행과 재일동포들의 지위문제,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시오.

## 리병휘

: 조일평양선언발표이후 론자들에 따라 그 평가가 갈라졌습니다. 조일관계는 두가지 역사성을 반영하고있는데 구종주국과 식민지간의 관계라는 측면과 함께 동아시아랭전체제하에서의 적대관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양선언은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며 지지파는 바로 이 측면을 평가하고있는것입니다.

한편 《경제협력》방식으로 합의된 식민지 지배의 청산문제에서는 파제를 남겼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으며 비판파(주:조일관계개선을 바라는 론자속에서의 비판이며 우익론객들의 반대리유하고는 맥락이 다르다.)의 주장은 그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자국의 식민지인 알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약간이나마 식민지문제를 국민적으로 논의할 계기를 거쳤는데 조일국교정상화는 과거청산을 옳게 거쳐 일본에 있어서 과거와의 단절을 도모하는 새 출발로 되여야 하며 그것이 21 세기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과거문제의 취급에서는 아직도 파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우선 확인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양선언의 의의는 획기적입니다.

두가지의 역사성이 투영된 조일관계는 식민지문제의 해결을 하층부에 봉인하면서 랭전적인 대립관계가 상층부를 이루어왔던것만큼 랭전의 종식을 공고히 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부쉬정권이후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현실적현안으로 부상된 조건에서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조일국교정상화의 길을 명시한 평양선언은 반드시 준수되여야 합니다. 평화의 문서인 평양선언이 리행되는 길에 반드시 하층부에 봉인되여온 식민지청산문제가 또다시 부상될것은 필수적입니다. 식민지문제가 국가간교섭을 통해서 해결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평양선언의 또하나의 의의는 식민지청산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와 구별되는 민간차원의 운동의 역할을 한층 부각시킨것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산물인 재일동포들을 망라한 총련의 사명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방침에서 개인보상문제에서 힘써나갈것을 천명했는데 이것은 총련의 역사적사명일것입니다. 랍치문제를 계기로 광란적인 반조선인선풍이 순식간에 일본사회를 덮

어쨌든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주의적정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식민지주의는 반드시 민족의 서열화, 차별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일본이 대륙침략으로 나갈 때 일본의 사상가들이 제창한 문명/야만이라는 2 분법적인 논리가 일본국민들의 조선인관, 아시아관에 오늘도 살고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포들속에서도 《과거는 과거로서, 미래지향적으로》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청산을 위한 운동은 과거의 문제이거나 그저 《한풀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청산문제와 더불어 일본국민들의 조선인관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안정된 권리를 획득하는데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가 제기한 과업

### 사회자

: 이번 대회에서는 3년간의 과업이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참가한 선생님들은 민족교육협의회, 새 세대 문제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직접 건의서를 작성한 성원입니다. 대회에서 명시된 과업 특히는 민족교육과 새 세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먼저 새 세대문제에 대하여 박재훈선생님 이야기해주시시오.

### 박재훈



: 1 년반에 걸치는 새 세대문제협의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재일동포 새 세대들의 의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자료를 부족하나마 확보하였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청, 청상회, 류학동, 녀성동맹, 조대, 조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트조사를 실시하였고 2,413 명의 유효회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번 앙케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었던것은 재일동포 새 세대들속에서 민족성은 대단히 희박화되어있다는것, 또한 민족이

나 국적에 대하여 자기의 생활상 편리에 따라 선택을 하는 실리주의, 실용주의적인 의식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총련조직과 련계가 없는 동포는 물론이고 민족교육을 받은 동포들속에서도 보편화, 일반화되어가고있다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은 1 세, 2 세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련이 이러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벌려나가야 된다고 할 때 조직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말과 모습을 가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달라져야 한다는것이 토의되였습니다.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의식도 크게 달라졌으나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새 세대동포들속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려는 좋은 싹들이 있는 오늘 그들이 주인으로 되고 동포코뮤니티를 형성하고 조직안에서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전대회를 계기로 총련조직이 새 세대를 어떻게 내세우는가하는 립장에서가 아니라 새 세대들이 어떻게 나서겠는가하는 립장에 서야 되지 않는가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립장의 변화, 운동의 주체를 이제까지의 구 세대로 보는가 새 세대로 보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이 크게 달라질것이기때문입니다.

총련조직은 새 세대들을 내세워주는 조직이 아니라 새 세대가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번에 총련중앙이 20전대회를 앞두고 새 세대문제협의회에 자문을 요구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을것입니다.

동포구성에서 3세, 4세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동포들을 이끌어 나갈 총련조직이 새 세대중심의 조직으로 되여야 함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운동을 주도해오신분들이 새 세대들을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는 그분들이 안심해서 맡겨주실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효

: 저는 3 세, 4 세 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이 대상들에게 어떻게 민족성을 중심으로 균형잡힌 교양을 안겨주겠는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는 속에서 민족교육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신영근선생님 이야기해주시요.

## 신영근

: 우리의 활동내용이 한가지의 기준에 따른 《전면공정》인가 《전면부정》인가의 이자택일적인 색채를 띠었던 이유는 앞서서 지적한것처럼 조미, 조일대결전이 정치사상적인 분야에서도 강도높이 진행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적구인 일본에서 진행되는 우리 운동은 매우 날카로운 사상적대결구도속에서 《먹느냐 먹히우느냐》는 사상적공방전을 벌려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는 모든 문제가 《혁명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첨예하게 제기되는데로부터 이른바 《순수한 객관성》의 견지에 머무르거나 《다각적인 리해》를 가지는것이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반도와 재일동포를 둘러싼 정치정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의 변화는 우리 사회과학자들에겐 경직적인 2 분법의 한계를 극복한 이른바 복안적 (假담극) 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있는 민족교육문제에 관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종래 민족교육문제는 재일조선인들의 운동전망과 나아가서 그 존재자체를 좌우하는 《생명선》이란 각도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며 여러 대책들이 강구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 전대회에서 제기된 민족교육강화방침에는 이와 같은 조직론적, 운동론적인 견지에서 본 중요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교육적의의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 있어서의 《특수가치》를 가지는것만이 아니라 21 세기의 교육실천에 공헌하는 《보편적가치》를 내포하고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옳게 리해하여야 앞으로의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신심과 희망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민족교육에 대하여 논의가 벌어질 때 학생수의 감소현상에 대표되는바와 같은 《위기의식》으로부터 비판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민족교육을 둘러싼 정황은 그와 같은 부정적요소들만이 가득차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학교에서도 전국적인 어린이수의 감소현상, 지방과 농촌의 파소화현상 등에 인하여 공립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어있으며 남은 학교들도 자체의 존속을 위하여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와 교육수준의 제고, 학교마다의 특색내기와 선전사업 등 피타는 노력이 추진되어있습니다.

한편에서 지역코뮤니티의 붕괴에 따른 사회적인 교육력의 약화와 부모의 소득격차에 대응하는 아이들의 학습의욕의 2극화현상, 우왕좌왕하는 문부과학성의 교육방침과 심각화되는 학력저하,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학급붕괴》와 《부등교현상》 등 현시기 일본교육을 둘러싼 정황은 상당한 정도로 엄혹한 상태에 놓이고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개성중시》의 기치아래 집단주의적인 교육적가치와 그 실천이 부정, 말살된 일본교육의 황폐화문제는 앞으로도 악화의 일로를 줄달음칠것이 예견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남조선 등 자본주의나라들의 교육현실들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있으며 교육붕괴현상과 청소년들의 황폐화문제는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막을수 없이 나타나는 《불치의 병》인것처럼 취급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경쟁원리지상주의와 효율성의 중시, 개성의 존중과 같은 이른바 《근대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진행되어온 《선진국들의 교육》의 제한성을 여실히 나타내고있으며 각국은 현재 그를 대신하는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의 리념과 실천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의 민족교육에서 볼수 있는 학생수의

감소현상은 주로 조국분단에 뿌리를 둔 《사상적대결》이나 일본 정부의 우리 학교에 대한 차별, 적대시정책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들에 기인한것이 대부분이며 민족교육의 리념이나 내용 그 자체가 교육붕괴현상을 일으키게 한 결과물로 일어나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온갖 차별과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민족의 넋과 자기존재에 대한 긍지감을 확고히 지니고 지덕체를 겸비한 몇몇한 젊은이들을 배출하고있는 우리의 민족교육이야말로 오늘날 모색되어있는 21 세기의 새로운 교육리념의 구체적실천이며 《대안교육의 모델》로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시기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배경에는 북남화해의 정치조류와 함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있는 남조선의 청소년교육문제를 구제하는 방도의 실머리를 우리 학교의 교육실천속에서 찾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남관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통일기운의 고조, 조일관계의 개선과 조일국교정상화 등이 전망되는 속에서 민족교육앞에 가로놓여있던 《정치적인 장벽》들은 하나씩 자취를 감추어나갈것이며 민족교육이 가진 《교육으로서의 본질적우월성》이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입니다.

《대안교육의 리념》은 《그릇된 근대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지향하는데로부터 근대화의 이름밑에 매몰, 말살, 차요시되어왔던 각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리념과 실천, 피압박소수민족들과 장애인, 노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며 옹호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맥우에서 볼 때 이번 대회에서 교육사업과 함께 총련이 중심과업으로 내건 《민족성의 고수발전》과 《생활봉사사업》은 총련조직의 장래발전을 담보하는 방침인것과 동시에 21 세기의 보편적가치에로 합세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리병휘

: 근대주의극복이라는것이 요즘 류행인것 같은데 그것은 근대주의의 최대의 산물인, 국민국가나 민족주의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으

로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의 어떤 잡지에 소개된 재일동포 3 세의 대학원생의 글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속에서 《민족》만을 극대화하자는 기존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내용였습니다.

새 세대문제협의회 건의안작성을 위해서 민단의 자료를 보았는데 새 세대속에서 이런 경향이 현저하고 민족교육체험자가 태반인 새 세대협의회의 양케트도 연령이 내려갈수록 그러한 썩이 보입니다.

민족을 자명한 가치로 내세우는 민족교육이 앞으로 이러한 새 세대, 특히 조직밖에 있는 새 세대동포들에게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인지 신선생님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 신영근

: 민족과 국가의 어느쪽에 귀속할 것인가, 또는 국가와 지역시민사회의 어느쪽에 귀속할 것인가 하는 논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한 사람과 정보의 세계적이동이 일상화되는 한편에서 이른바 《국민국가의 폐단》과 《민족분쟁의 비극》들이 매일처럼 지적되는 오늘날 민단, 미조직, 귀화자, 새 세대동포들을 대상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어느만큼 구심력을 가지겠는가 하는것은 주의깊게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NGO나 NPO가 전세계적으로 활약무대를 넓혀나가고있는 것을 보아도 실감되듯이 근대에 들어 만들어진 《국민국가》란 정치기구는 이러저러한 비합리성을 내포하고있으며 특히 랭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그것이 점차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이른바 《보편적인권》도 바로 그가 《국가의 성원》으로 인정되어야만 처음으로 보장된다는것이 21 세기 초기의 인류앞에 놓여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를 초월하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리념》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하고있으며 말그대로 리념적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것처럼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문화적가치관이나 전통적세계관

은 《그릇된 근대화》의 폐단을 극복하고 21 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류적가치관의 산출에 기여할수 있는 귀중한 재부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상황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부정적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들이 마치나 《시대착오적인 유물》인것처럼 묘사하고 차요시하는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틀린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조국과 민족》이 가지고있는 현실적의의를 재일동포들에게 알기쉽게 해설, 침투, 실감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가시화》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사협앞에 나선 과업

### 사회자



: 조국통일의 실현, 조일국교정상화 등 앞으로의 극적인 변화를 시야에 넣을 때 총련의 면모도 그에 대처하여 많이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추상적인 말이지만 저는 총련이 매력있는 조직으로 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련이 매력있는 조직으로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리병휘

: 우리의 방침이나 운동리념이 사실 동포들의 실감에 직통적으로 맞물리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어떤 젊은 조청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무엇때문에 총련사업을 하는지 명백한 답을 아직도 찾고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회운동은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모순을 풀기 위해 있는것이며 조직도 그를 위해 요구되는것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재일동포들을 구속하고있는 모순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할것입니다.

## 김화효

: 이른바 개인적자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리해관계를 집단, 사회의 리해관계와 일치시킨다는것이 정말로 간단치 않습니다.

총련조직에 있어서 과연 매력이란 무엇인가하는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신영근

: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요구를 들어준다고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매력있는》 조직으로 만든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매력적》인가 하는것은 심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일본의 가치관과 풍조속에서 동포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요구》를 무제한하게 들어준다는것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동포지향적》인 조직으로 되는 방도가 아니며 또 그것이 조직의 《매력》으로 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포들의 생활상요구를 해결해주면서도 그들이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응당하고도 옳바른 요구를 가질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 주는것이 바로 사회과학자로서의 우리앞에 나선 과업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리병휘

: 우리를 둘러싼 모순이 많은데 우리의 교육에서 그러한 모순을 실감시켜주는 공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신의 력사적인 립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력사인식이 든든해야 합니다. 이번 총련의 방침에서 과거교양문제를 강조하고있는데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 월달에 청상회에서 주최하는 민족포럼에서는 식민지문제를 주제로 다룬다고 하며 얼마전에 서울에서 진행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련대협의회에도 대표를 보내고있습니다. 또한 류학동에서는 력사를 바로 알기 위한 운동을 올해 강하게 밀고나간다고 합니다. 새 세대들은 1년8개월간의 시련을 겪으면서 미래개척을 위한 자기나름의 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이러한 새 세대들의 주체적인 운동과 련

동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저자신 력사연구자답게 대학에서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자체사명을 간직하고있습니다.

#### 김화효

: 민족교육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말과 우리 력사를 똑똑히 배워주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자주정신을 심어주는것이라고봅니다.

#### 신영근

: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있는 조선어교육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또 실지 개선해야 할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교육이 가지고있는 우월성과 실효성이 매우 크다는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유치반시기의 자연스러운 조선어교육 = 습득과정은 2 언어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속에서도 주목을 받을만큼 매우 앞선 실천입니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그 가치와 방법론을 옳게 리론화, 정식화하지 못하고있으며 또 교원들이 깊이 자각, 집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말의 중요성,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일상적사용까지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의욕환기》에 절박하게 달라붙어오지 못했다는 결함도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훈

: 요구를 들어주고 이를 실현해주는 조직이 매력있는 조직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니즈》를 바로 틀어잡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동시에 《니즈》를 발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포들속에 《니즈》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가지 기회를 만들어 《교양》하고 눈을 뜨게 함으로써 새롭게 《니즈》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총련조직이 동포들의 호상 친목을 도모해주는 단체라는 성격과 함께 운동조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앞으로 제기되는 과제들을 실현해나가는데 있어서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영근

: 사회과학자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앞서서 여러번 언급했기때문에 강조못한 측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미 론해진것처럼 재일조선인운동이나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은 복잡한 력사적경위와 정치적구도속에서 산생된 《특수적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수적문제》에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것과 동시에 그속에 있는 《보편적요소》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리념이나 가치를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난 인류적인 《보편적가치》으로 인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밖에 못할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 김화효

: 우리 사협은 6월 28일에 결성 45돐을 맞이합니다.

지난 45년간의 로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되새기는 가장 귀중한 신조는 자기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시대의 지도사상에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오늘 온갖 반동적인 모략선전에 광분하고있는 내외원썬들의 책동을 고도의 두뇌전, 정보전으로 짓부셔버림으로써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사상리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한편 재일조선인문제가 발생하여 벌써 100년이 지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명년에 조국해방 60돐, 총련결성 50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련 20차 전체대회에서는 재일동포들의 력사에 관한 자료와 기록의 수집, 정리, 보존과 연구, 해설사업을 진행하는 상설적인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를 총련중앙직속으로 내올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총련결성 50돛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연구소를  
내온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사업에 사협조직이 적극 기여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총련조직과 동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리론  
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협의 본분을 다해나갑시다.

#### 사회자

: 오늘은 실천적인 이야기, 시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속에서 귀중한 발언들을 해주셔서 정말 고  
맙습니다.

## 사협 제 17 차대회소식

조선신보

### 사협 제 17 차대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제17차대회가 10일 조선출판회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총련중앙 남승우부 의장과 사협중앙 김화효회장, 각지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승우부 의장이 인사를 하였다. 부의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높은 정치적열의와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총련 20전대회의 특징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사협조직과 회원들이 대회결정

관철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김화효회장이 대회보고를 하고 4명의 대의원들이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활동적무기로 삼고 21세기의 사협을 대중적인 학술연구조직, 학술운동단체, 학술교류센터로 꾸리기 위하여 분투해온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앞으로 조직의 체모를 완비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김화효회장을 재선하고 새로운 역원들을 선출하였다.

대회에 이어 사협결성 45돛기념연회가 진행되었다.



일본·도쿄

###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를 일심단결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로 뜻깊게 맞이한 그 기세로 애국애족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결성 45 뉘을 맞이하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결성이후 지난 45 년동안 위대한 주체사상과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비롯한 광범한 재일동포들이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를 깊이 간직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은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해외에 훌륭한 사회과학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협회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활동과 선전사업을 총련의 실정에 맞게 보다 적극화하여 총련애국위업수행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주체 93(2004)년 6 월 17 일

평양

##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제 17 차대회 보고

\*총화부분은 체계만을 언급

### △앞말 (대회의 목적과 의의)

#### 1.사협 제 16 차대회이후의 총화

##### 1)사협 제 16 차대회방침과 대책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사협중앙 상임리사회대렬을 열성이 있고 패기있는 젊은 사회과학자들로 보강하는 한편 지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임리사회와 지부리사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협의 면모를 대중적인 학술연구조직, 운동단체, 교류센터로 일신하고 사협의 특색을 뚜렷히 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 2)이룩한 성과

—사협중앙 상임리사회와 지부리사회들의 기능과 역할, 책임성이 한층 높아진것입니다.

—대중적인 학술연구조직, 운동단체, 교류센터로서의 사협의 면모를 크게 일신하는데서 귀중한 전진을 이룩한것입니다.

—조국통일과 대외사업을 비롯한 애족애국운동발전에 특색있게 기여한것입니다.

##### 3)성과의 요인

##### 4)귀중한 경험

—첫째로 자기 수령,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우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전망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추호의 양보도 없이 확고히 고수해야 할 진

리이다는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정세가 험악하고 조건이 어렵다 해도 사회과학자로서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공격전의 태세를 가지고 단결하여 달라붙는다면 방도와 대책도 나오고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셋째로 사협일군들이 언제나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회원들과 동포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신축성있고 참신하게 구상하고 대담하게 조직하여야 보다 많은 회원들과 동포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수 있다는것입니다.

## 2.앞으로 3년간의 활동방향과 과업

### 1)우리 앞에 나선 요구성과 앞으로 3년간의 활동방향

#### △우리 앞에 나선 요구성

대의원여러분 !

총련 제20차 전체대회는 조국광복과 총련결성이래의 역사적과제가 실현되는 새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전망인식에 기초하여 애족애국사업의 새로운 단계를 주동적으로 열어나갈것을 현시기 총련이 지닌 역사적 사명으로 뚜렷이 규정하였으며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과업과 대책들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사협조직앞에는 총련 20전대회결정정신에 따라 조국통일과 조일국교정상화를 가까운 현실로 내다보게 된 역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사회과학자들의 본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애족애국운동의 새 단계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 △활동방향과 목표,활동방식

사협이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금후 3년간의 활동방향은 새 세대를 주인으로 하는 광복의 재일조선인 학술연구조직, 학술운동단체, 학술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이 사협조직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학술 연구조직, 운동단체, 교류센터로 꾸려나가는 토대축성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간은 그러한 조직적면모를 명실공히 갖추어나가는 체모완성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이 17기 우리앞에 나선 양보할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방향에 따라 학술연구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고 실천적 의의가 있는 《문제해결형의 연구실적》을, 학술운동에서는 동포들의 지향과 의사에 밀착한 《동포참가형의 광보활동》을, 학술교류에서는 광범한 동포연구자들은 물론 공화국과 남조선, 일본과 해외의 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을 겨냥한 《마당개척형의 교류활동》을 목표로 하여 이를 적극 지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16기에 축적된 경험을 한계단 심화시켜 학술연구와 학술운동, 학술교류의 《3위일체》를 활동방식으로 하여 일상적인 연구부회 활동, 공개심포زم과 세미나의 개최, 논문집과 붓크렛트, 회보의 출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밀고나갈 것입니다.

## 2)과업과 방도

### △과업

이상과 같은 활동방향과 목표, 활동방식에 따라 우리는 첫째로, 시대와 동포사회가 긴요하게 제기하는 학술적문제들을 종자로 잡고 연구부회를 거점으로 리론활동을 활성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상리론가, 정치실력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대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참된 애족애국의 사상인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원론에 대하여 리론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민족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는 조선근현대사와 재일조선인사연구를 비롯하여 민족성과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어문학, 력사학, 지리학 연구, 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데 이바지하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연구, 시대의 특징과 조선반도정세전망을 밝혀주는 국제관계론에 대한 연구를 왕성히 벌리며 립지조건을 살린 일본 문제연구에도 관심을 돌려나갈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협의 연구활동의 거점은 다름아닌 연구부회입니다.

우리는 학문분야별로 꾸려지고있는 기존의 전통있는 연구부회활동을 계속 유지공고화하는 한편 16기기간에 췌마에 따라 학제적으로 조직된 사회문제연구회, 조선문제연구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현안의 과제로 나서고있는 민족문화연구회와 동포사회연구회의 결성준비를 다그쳐 올해중으로 그 활동을 개시하며 총련사업과 동포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민족교육연구회를 전망성있게 꾸려나갈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학문분야별의 연구부회와 사회문제연구회, 조선문제연구회,

민족문화연구회, 동포사회연구회 등의 제마별연구회, 조대와 오사까, 효고, 교토, 도끼이의 지부단위연구회들로 이루어진 정연한 연구거점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그 성과가 공개심포즘과 세미나의 조직, 논문집과 북크레프트, 회보의 출판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할것입니다.

둘째로, 학술보고회의 기획을 더욱 개선하고 공개심포즘과 세미나를 시기적절하게 조직하며 사회과학논문집과 북크레프트를 비롯한 출판물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것입니다.

우리는 16기의 경험을 살려 학술보고회의 기획을 더욱 개선하여 기념심포즘을 시대와 동포사회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리론실천적문제를 가지고 보다 질적으로 조직할것이며 분과회도 제마를 뚜렷이 제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벌리는 방향에서 그 실효성을 높여나갈것입니다.

당면 명년의 총련결성 50돛에 즈음하여 학술보고회를 가지며 기념심포즘과 분과회를 통하여 지난 반세기에 걸치는 총련사업의 력사적경험과 금후 전망을 리론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총련과 더불어 애족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실적을 내외에 크게 과시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절을 비롯한 주요 기념일과 정치행사에 즈음하여 연구토론회를 권위있게 조직하며 이 마당이 축적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소개선전하는 더욱 의의깊은 마당으로 되게 할것입니다.

공개심포즘은 주로 일군들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당으로, 공개세미너는 일본사람들을 비롯한 내외의 연구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당으로 그 위치를 정리하여 분기에 한번이상 시기적절한 제마를 가지고 특색있게 조직해나갈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계기로 사협중앙에 출판편집부를 내오고 그 주관하에 사협의 정기간행물들의 수준을 부단히 개선해나갈것이며 사회과학논문집은 회원들의 연구논문들을 묶어 년 1 회, 북크레프트는 사회적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내용으로 년 2 회 출판하고 그 독자대렬을 늘려나갈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효고지부의 《생활과 사회과학》 오사까와 교토지부의 《회보》를 비롯한 지부단위의 출판물을 더 다양하고 특색있게 편집출판하며 광범한 동포들속에 널리 보급해나갈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사협의 인터넷홈페이지문제도 토의에 상정시켜 그 개선을 준비해나갈것입니다.

셋째로, 공화국과 남조선, 일본과 해외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인 학술행사에 당당히 진출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선사회과학원과의 련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사협회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연구자들과 일본학자들의 공화국과의 학술교

류의 창구로 해나갈것입니다.

당면 8월에 평양에서 공화국의 사회과학원과 남조선의 정신문화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제2차조선학세계대회》에 사협대표단을 보내어 학술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것입니다.

또한 경제를 비롯한 연구분야들에서 조국과의 학술교류의 통로를 개척해 나가며 개성공단시찰과 같은 주동적인 조사연구사업도 대담하게 기획해나갈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연구자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사협의 공개세미나와 연구회마당에 그들을 초청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조직화를 시도해나갈것입니다.

사협회원들이 이미 관계를 가지고있는 일본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단체 및 개별연구자들과의 일상적인 교류를 한층 깊여나가며 그들을 우리의 연구회들에 파네러로 적극 초청하는 한편 심포즈이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가능성도 모색해나갈것입니다.

특히 이미 꾸려진 《조선문제연구회》를 모체로 하고 여기에 일본연구자들도 망라하는 《조선문제연구자교류회 (가칭)》를 학술교류의 거점으로 새로 내올것을 전망하여 그 준비를 다그쳐나갈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학자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현대조선문제, 력사문제, 해외동포문제 등을 제마로 하는 합동세미나를 조직할것을 목표로 하여 일상적인 련계를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면 사협의 공개심포즈와 세미나마당에 남조선의 관련연구자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술행사마당을 통하여 그들과의 교류를 깊여나갈것입니다.

**넷째로, 새 세대와 광복에 과녁을 정하여 사협의 조직적기반을 확대강화해나갈것입니다.**

사협중앙과 지부들에서는 회원들과 동포사회과학자들의 동태와 활동정형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기 활동을 개선하며 특히 새 세대들을 학술운동과 사업기획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나감으로써 사협의 회원대렬과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나갈것입니다.

그러기위하여 조대의 젊은 교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사회문제연구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기에 각계각층의 새 세대 동포연구자들을 폭넓게 망라해나갈것입니다.

또한 조대연구원과 류학동조직과의 련계를 깊이고 그들의 연구활동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일본대학원에 있는 동포연구자들도 모조리 장악하고 사협의 학술운동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참여시켜나갈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권협회, 과협, 문예동 등 총련의 다른 지식인단체들과도 일  
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포사회의 학술문화운동을 밀고나가는데서 힘과 지  
혜를 합쳐나가며 새로 꾸려진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와의 협력도 적극 제안  
해나갈것입니다.

### △방도

사협앞에 나선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각 상임리사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선차적문제로 나섭니다.

사협중앙상임리사회는 지난 16기기간에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게》를  
구호로 기존의 관례와 틀을 깨는데서 이룩한 일정한 경험에 토대하여 1  
7기에는 《착실히 그러나 새맛이 나게》의 구호밑에 뚜렷한 사업실적을  
올림으로써 회원들과 동포사회과학자들의 신임에 보답해야 할것입니다.

매개 지부의 상임리사회들은 지난 기간 온갖 난관과 악조건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겨내면서 조직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경험을 살려 기관운동을  
활성화하고 동포사회과학자들을 보다 폭넓게 묶어세우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재정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는속에서 중앙과 지부의 상임리사회들은 재  
정규률과 절약기풍을 세우고 회비제를 엄격히 지키는 한편 찬조회원과 고  
정찬조자대렬을 확대하며 정기간행물의 수금도 기관적인 사업으로 보장하여  
야 할것입니다.

새로운 발전단계를 전망하는 애족애국사업의 요구에 맞게 사협의 규약을  
개정하는 문제가 리사회에서 상정되었으며 규약개정위원회에서의 토의를 거  
쳐 1차적인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규약개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계속하여  
다음번 사협중앙리사회에서 그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토의결정하려고 합  
니다.

저는 규약개정에 관한 계속심의를 사협중앙상임리사회에 위임하여줄것을  
본대회앞에 제기하는바입니다.

### △맺음

대의원여러분 !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사협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자기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다할수 있는가 하  
는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3년간의 사업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신념, 조국의 통일과 강성부흥에 대한  
신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도에 대한 락관을 가슴가슴에 깊이 간직

하고 17기의 3년간을 사색과 탐구, 투쟁과 혁신의 나날로 수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체 사협회원들과 동포사회과학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따라 총련 제20차 전체대회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광복의 재일조선인 학술연구조직, 학술운동단체, 학술교류센터로서의 사협의 새 역사를 힘차게 개척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제 17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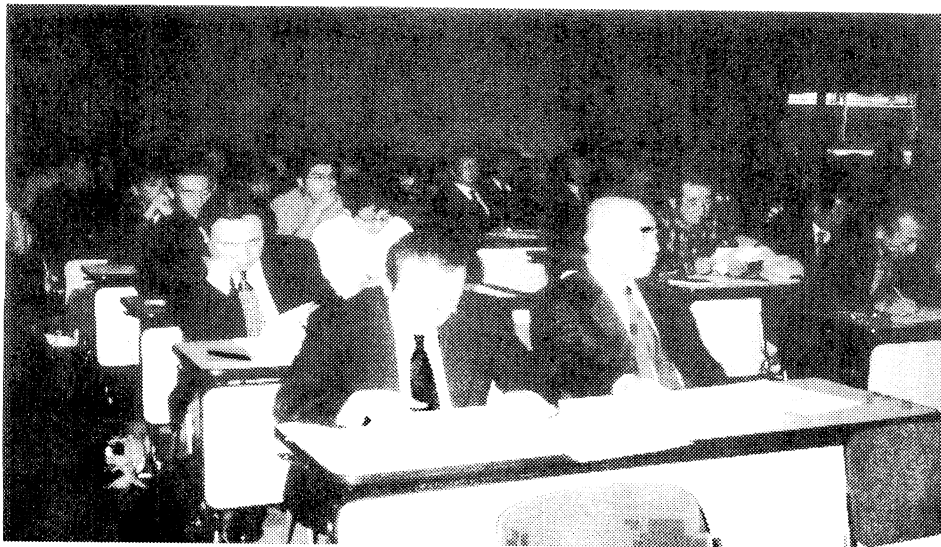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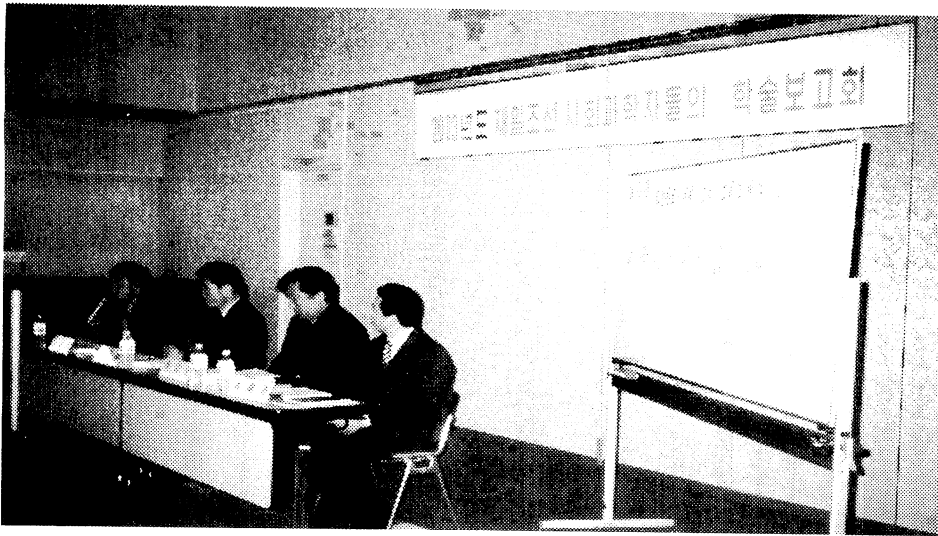
### 중앙상임리사회

회 장: 김화효  
부 회 장: 리영수(출판·편집부담당)  
강성은(조선대학교지부 담당)  
강일천(연구·기획부장 겸임)  
한동성(총무부장 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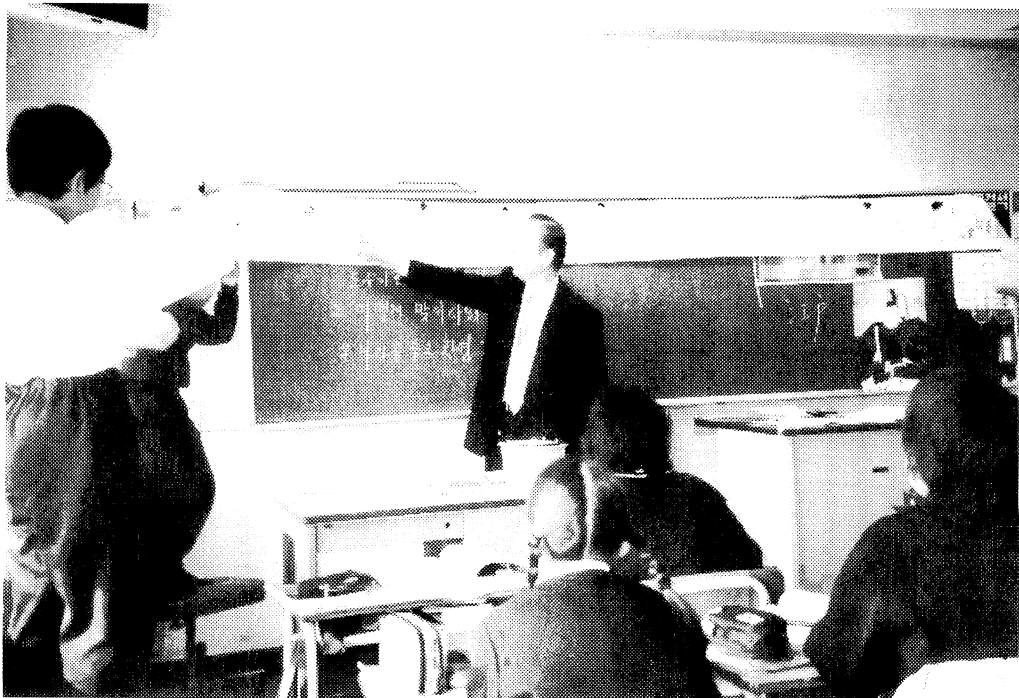
총 무 부: 양 헌부부장  
연구·기획부: 김양승부부장  
                  문호일부부장  
출판·편집부: 금기철부장  
                  리평태부장  
                  김영훈부부장  
재 정 부: 정진철부장

## 《지난 5 년 간의 주요 활동》-1999.11~2004.6-

1999.11.1	사협결성 40돐 기념보고집 발행
2000.5.21	총련결성 45돐기념 재일동포대축전 (도쿄조고 운동장)
6.13-15	평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 진행, 《북남공동선언》발표
2000.7	사협 효고 《生活と社会科学》제4호 발행
9.22-25	제1차 총련동포고향방문단 실현
2001.2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연구토론회》진행, 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 일본 방문
4.15	사협오사까 《사협오사까 (〔태양절기념호〕1-10호)》발행
2.21	총련중앙 한덕수의장 서거
5.25-26	총련 제19차 전체대회 (도쿄조선문화회관)
6.16-17	조선대학교창립 45돐 기념대회와 페스티벌
6.23	사협 제16차대회 (조선출판회관)
7.7	《6.15북남공동선언 1주년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심포즘》(도쿄 조선출판회관)
9.25	사회과학논문집 제13호 발행
11.29	일본경찰당국, 총련중앙회관과 도쿄, 니시도쿄본부회관을 강제수색하는 엄중한 정치탄압 감행
11.30	공화국 외무성대변인, 일본당국의 총련에 대한 정치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2	사협오사까 《사협오사까》제11호 발행 사협효고 《生活と社会科学》제5호 발행
2002.2.3	사협중앙리사회 제16기 제2차회의 확대회의 진행 2003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 심포즘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1》(도쿄예술극장)
4.6	김일성대원수님 탄생90돐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조선대학교 기념관)



4.10	사협효고 《효고현조선인운동연혁사》 (《生活と社会科学》臨時号) 발행
4.29-6.29	조국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진행 (평양 5월 1일경기장) ※7.31 까지 연장
5	《사협오사까 (12 호)》발행
5.21	총련중앙위원회 제 1 9 기 제 2 차회의 (조선회관)
6.15	사회문제연구회 (새세대연구회) 발족 및 제 1 회연구회
6.21-28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이 참가
7.1	조국에서 《7.1 경제관리조치》도입
9.17	조일수뇌회담 평양에서 진행, 《조일평양선언》발표
10.1	긴급심포즘 《평양수뇌회담의 의미를 생각한다》 (도쿄 류오대학 수루가다이기념관)
11.9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자문기관인 《민족교육협의회》발족 (조선회관)
11.24-12.3	사회과학원창립 50 뽁축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조국방문
12	사협오사까 《사협오사까》제 13 호 발행 사협효고 《生活と社会科学》제 6 호 발행
2003.1.26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자문기관인 《새세대문제협의회》발족 (도쿄 케이오프라자호텔)
2.28	사협중앙리사회 제 16 기 제 3 차회의 확대회의 진행 2 0 0 4 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 심포즘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Ⅱ -미국식 <세계화>와 조선반도》 - (도쿄예술극장)
3.6	사협중앙상임리사회와 사협조선대학교지부의 공동으로 학습회진행 - 해외교포정책, 조국관문제 등 논의
4.25	사협교포 주최로 《총련활동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진행
5.12	사회과학론문집 제 16 호 발행



7.16	공개심포زم 《전쟁이나 불가침이나-조선정전협정 50주년에 제하여》 (도표 유오대학 수루가다기념관)
9.1	사협붓크렛트 제 1 호 《전쟁이나 불가침이나-조선정전협정 50주년에 즈음하여》 발행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돐, 재일조선인 축하단으로 사협회 장이 조국방문
11	사협 효고 《生活と社会科学》제 7 호 발행
12.9	공개심포ز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농업의 오늘-식량문제해 결의 전망》 (도표 유오대학 수루가다기념관)
2004.1	사협오사까 《사협오사까》제 14 호 발행
1.15	조선문제연구부회 새로 발족-새해공동사설의 기본사상과 특징에 대 하여 (조선출판회관)
1.20	사협붓크렛트 제 2 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농업의 오늘- 식량문제해결의 전망》 발행
1.31	총련중앙위원회 제 19기 제 4 차회의
2.17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선포 30돐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조선대학교 기념관 배려실)
2.28	2004년도 사협학술보고회-심포زم 《북남경제교류와 재일동포》 - ( 도표예술극장)
5.15	사협도까이 《조선반도의 핵》출판
5.28-29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 (도표조선문화회관)
6.25	사협붓크렛트 제 3 호발행 《북남경제교류와 재일동포》
7.10	사협 제 17 차대회, 사협결성 45돐 축하연 (출판회관)

## 김정일장군님께서

## 당중앙위원회 사업시작 40돛기념

### 사협 연구토론회 진행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돛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가 18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총련중앙 서만술의장과 허종만책임부의장이 각 부의장들과 사협중앙 김화효회장, 조선대학교 장병태학장을 비롯한 사협회원들, 총련중앙과 중앙단체, 사업체 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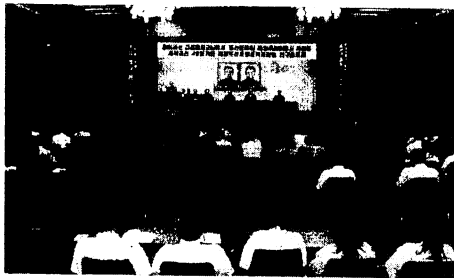
모임에서 인사를 한 김화효회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4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고 특히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신것은 그이의 출중한 정치실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첫째로 자주정치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 둘째로 인덕정치의 본보기를 창조, 셋째로 선군정치의 새 시대를 펼친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4명의 사협중앙 리사들이 연구토론을 하였다.

첫번째로 리영수리사(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부학부장)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돛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두번째

로 한동성리사(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부학부장)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조직령도하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세번째로 강희봉리사(총련 東京도본부 부위원장)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독창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4번째로 림왕호리사(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각각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사변이 가지는 의의와 지난 40년간 주체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20전대회결정을 앞장서 관철할 결의를 다졌다.



연구토론을 듣는 참가자들



## 사협중앙 김화효회장의 개회인사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국과 총련을 둘러싼 정세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를 일심단결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한 매우 뜻깊고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 돛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를 가지었습니다.

이 연구토론회의 목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혁명활동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혁명과 건설에서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간직하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40 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과 문화건설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며 그 하나하나가 다 혁명발전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

특히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수행해오신 지난 10 년간은 전대미문의 고난을 몸소 해쳐오시여 군과 인민을 이끄시여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나날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출중한 정치실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뜻깊은 시기였습니다.

지난 40 년간의 령도활동을 통하여 우리들이 깊이 간직하게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은 첫째로, 자주정치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것입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적대를 세우지 못한 결과 일부 나라와 민족들이 국권을 빼앗기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주정치의 위대성에 대하여 절감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은 둘째로, 인덕정치의 본보기를 창지하신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룩되고있는 당과 군대, 인민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가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은 셋째로, 선군정치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전백승의 기치인 선군정치를 펴시여 우리 조국의 군사진지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지시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 국제적련대성에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본 연구토론회에서는 사협중앙의 리영수, 한동성, 강희봉, 림왕호의 4명의 리사들이 연구토론을 하게 됩니다.

리영수리사의 토론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력사적경위, 사업개시의 주요내용과 특징들에 대하여 고찰하게 됩니다.

한동성리사의 토론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과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정립하신 업적에 대하여 년대별로 밝히게 됩니다.

강희봉리사의 토론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조하신 선군정치의 본질적내용과 위력에 대하여 특히는 정치실천에 서 나타나고있는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림왕호리사의 토론을 통해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64년 12월 14일에 하신 말씀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여야 합니다》에서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을 밝히신데 대하여, 그 이후 매시기마다 총련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업적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총련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총련 20차 전체대회결정을 적극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으로 올려세워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20전대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애족애국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며 명년에 맞이하는 총련결성 50돐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21세기 해외교포운동의 새로운 본보기를 창조해나가는 력사적리정표로 장식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사협은 이달 28일에 결성 45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시대의 선구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이며 장군님의 위대성선전과 민족성배양을 위한 동포교양사업에 적극 나서 자기들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온갖 반동적인 모략선전에 광분하고있는 내외원썩들의 책동을 고도의 두뇌전, 정보전으로 짓부셔버림으로써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사상리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갈것입니다.

오늘의 연구토론회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 20 차 전체대회 결정관철에로 힘차게 펼쳐나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것을 바라면서 저의 개회인사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이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리 영 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  
돌을 맞으며 그가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밝히는 문제는 주체혁명위  
업이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들어선 환경에서 보나 조선혁명앞에 펴  
쳐진 새로운 전환적국면과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매  
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이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밝히는데서 전제로 나서는 문제는 다음과 같  
습니다.

첫째로, 《사업시작》과 《혁명활동개시》를 구별하여야한다는것입니  
다.

혁명위업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경우 혁명활동의 개시문제는  
혁명위업의 시원이 언제부터 열리었으며 그 혁명위업이 어떤 성격  
의 위업인가를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폐건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개시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신  
때로부터이며 그 특징은 자주적인 립장에 기초하여 활동을 개시,  
청년학생운동,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육성으로부터 활동을 개시, 정확  
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으로부터 활  
동을 개시하신것으로 적을수 있으며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주체의 혁명위업이라고 규정합니다.

후계수령의 경우는 《혁명위업의 개척》으로서의 《혁명활동의 개  
시》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여 후계수령의 《사업시작》은 새로운 혁명위업의 개척을  
밝히는 문제로 제기되지 않다는것입니다.

그것은 후계수령의 역사적사명이 선대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 있기때문입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는 혁명활동의 개시  
라는 표현을 쓰지않으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으로  
표현하고있는것입니다.

둘째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업시작》문제를 어떤 위치에 놓고  
론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우에서 지적인 《혁명위업의 개척》으로서의 활동개시문제와는 다르다고하여 후계수령의 《사업시작》문제가 그 어떤 의의도 없는 문제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후계수령의 《사업시작》문제는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후계수령으로서, 직업적혁명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 언제인가, 시작한 사업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이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 설정되게 됩니다.

다시말하여 후계수령의 《사업시작》문제는 철저히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론해야 한다는것입니다.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역사적경위에 대하여

후계수령의 사업시작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것은 역사성의 견지와 선대수령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는것입니다.

역사성의 견지에서 고찰한다는것은 사업시작의 역사적환경과 조건, 어떤 요구와 사명을 지니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이후 혁명발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각도에서 고찰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선대수령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는것은 후계수령의 역사적사명과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선대수령의 어떤 뜻에 기초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선대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인가를 밝히는 각도에서 고찰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우선 누구의 어떤 뜻에 따라 어떤 역사적사명을 지니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어떤 뜻에 따라 어떤 사명을 지니고 사업을 시작하는가에 따라 시작하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그 의의가 좌우되기때문입니다.

1)누구의 어떤 뜻에 따라 어떤 역사적사명을 지니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향도적력량이며 당중앙위원회는 혁명의 최고참모부입니다. 따라서 당중앙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명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한 1960년대중엽의 긴장된 정세와 현대수정주의의 영향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으며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이 강화되던 당내형편에서 당중앙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4년 3월 31일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일을 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시였습니다.

다시말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며 그것은 또한 장군님께서 그런 역사적사명을 지니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것은 또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 굳은 결심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56년 9월 10일에 허담동지에게 주신 기념수첩에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라는 글을 적으시였으며 앞으로 수령님께서 어려운 길을 걸으시지 않게 해드리는것,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것이 자신의 최고사명이라고 밝히시였습니다.

또한 종합대학졸업을 앞둔 1964년 3월 26일에 학급세포위원장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우리 모두 주체의 조국, 주체의 당을 세계에 떨치는 혁명전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가 됩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사업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혁명적본분으로 간주하신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시였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으며 장군님의 굳은 결심이였습니다.

또한 시대와 역사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부여한 중대한 사명이였

습니다.

## 2)사업시작을 언제로 보는가?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을 언제로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의향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나오신것은 1964년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4월 1일을 사업시작으로 보지않고 6월 19일로 보는것은 바로 이날에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그 교시관철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시였다는것과 관련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4월 1일에 당중앙위원회에 나오시여 조직지도부 평양시 및 중앙기관지도과 지도원으로서 일을 보시게 되었으며 전반 당사업정형을 료해분석하시는 과정에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포착하시였습니다.

6월 19일 사업료해내용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최종결론을 내시고 앞으로의 사업활동방향에 대하여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을 계기로 정식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배치되어 수령의 전사로서 교시관철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후계수령의 력사적사명과 선대수령과의 관계속에서 6월 19일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로 보는것입니다.

##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시작하신 사업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시작하신 사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밝히는것은 사업시작의 력사적의의를 밝히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며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론증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시작한 사업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그가 견지하고 있는 근본자세와 립장,그가 가진 구상과 의도,그가 지닌 자질과 능력, 정치실

력이 밝혀지게 됩니다.

#### 1) 시작하신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시작하신 사업의 주요내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당중앙위원회를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당의 참된 참모부로 꾸리기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받들어모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겠는가를 늘 생각하고 실지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또한 동지애로 굳게 뭉쳐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수령님의 당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사업과 활동에서 주선은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있으며 이것은 당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히시였으며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습니다.

셋째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를 총화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66년 5월부터 시작하여 3년반동안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였으며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없으며 그것은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넷째로, 문학예술혁명을 비롯하여 병진로선의 관철, 조국통일과 대외활동, 재일조선인운동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리시는대로 전환



하기 위한 보좌활동내용입니다.

## 2) 사업시작의 주요특징에 대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당중앙위원회에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업시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리신 모든 사업이 수령의 전사로서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제승완성하시려는 숭고한 력사적사명감과 원대한 구상, 모든것을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해나가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근본자세와 립장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력사적사명과 구상, 근본자세와 립장의 견지에서 본 특징입니다.

둘째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리신 모든 사상리론활동이 수령중심론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하고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제승발전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고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상리론활동의 기초와 목적의 견지에서 본 특징입니다.

셋째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리신 사업내용이 다방면적이고 심오할 뿐아니라 기성관념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말그대로 새롭고 독창적이며 창조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질과 능력, 정치실력의 견지에서 본 특징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작하신 사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후계수령으로서의 활동의 새로운 견지를 개척하시였으며 그것은 곧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선대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특출한 령도력, 높은 정치실력을 갖추신 장군님께서만이 창조할수 있는 빛나는 귀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3.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 력사적경위와 시작하신 사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분석해보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것은 우리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큰 사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의의는 첫째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령도를 더잘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수령의 유일령도를 더잘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는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당건설과 활동에서 획기적전환의 이정표가 마련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여러 부문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수령의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으로서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 우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한 동 성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지난 40 성상 당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과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정립하신 업적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괄하고자 합니다.

### 1.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은 첫째로, 그 고도의 독창성에 있습니다.

독창성은 사상리론활동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시대와 혁명을 향도하는 사상리론을 착상하고 전개하며 정립하기 위한 사상리론가들의 창조활동은 새것을 도출하는 독창적인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늘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의 론문이나 연설, 담화같은것을 거의다 읽어보는데 그의 리론에서는 항상 새것을 도출하는 독창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김정일동지의 리론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창조가 발견이라면 모방은 반복이다》, 《남의 소리를 얼마디 외우는것보다 똑똑한 자기 소리를 한마디 할줄 아는 그러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떤 사상리론적문제든지 기성의 리론이나 공식,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중심에 놓고 설정하고 고찰하며 우리 식, 주체식으로 풀어나가시였습니다. 우리 식, 주체식은 경애하는 장군님식 혁명방식인 동시에 사상리론활동방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또한 언제나 비반복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리론적문제든지 사물현상의 고유한 본성을 구체적이고 특색

있게 고찰하고 전개하며 비반복적인 종자를 잡아쥐고 창조적으로 참신하게 풀어나가는 논리로 일관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리론활동에서의 고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시기 1966년부터 1969년까지의 3년간에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맑스-레닌주의고전에 대한 학술토론을 거듭하시면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사를 총화하신 업적을 들수있습니다.

이 시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여러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에는 두가지 편향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나온 시대적조건과 리론적출발점, 역사적과제에는 관계없이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혁명단계에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공리로 간주하는 화석처럼 굳어진 교조주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950년대중엽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에 의하여 《정세변화》와 《창조적발전》을 근거로 맑스-레닌주의의 간판밑에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면서 이색적인 사상리론이 류포된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고전가운데서 《자본론》이나 《공산당선언》, 《국가와 혁명》과 같은 주요저서 30 여건을 선정하여 그것을 주체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총화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철학, 정치경제학분야의 권위있는 사회과학자들과 수십차례나 진지한 토론을 벌리시고 고전의 구절마다를 발췌하시면서 그 역사적제한성을 밝혀내시였으며 사회과학자들에게 해당한 역사적시기와 사상별, 내용별로 분석방향과 론점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3년간의 공동작업을 결속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대해서도 허무주의적으로 대해서도 안된다는것과 맑스-레닌주의에서 참작할것은 참작해야 하지만 그것을 오늘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만능의 처방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장군님께서서는 이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사상도 혁명과 건설을 옳바르게 이끌어줄 사상이 없다는것을 충분한 론거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고 선포

하시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은 둘째로, 그 투철한 인민성에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되는것이다.》

사상과 리론은 원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만큼 인민성은 사상리론가들의 본연의 자세와 립장, 정신적 품모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종합 일반화하신 기초우에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철두철미 인민의 관점과 립장에서 대하고 풀어나가시였습니다.

사상리론활동에서의 투철한 인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업적을 들수 있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많은 당들은 오래동안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순수 수익성과 리윤을 높이는 문제로만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벌리도록 할것인가 하는 문제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는 여러가지 혼란이 조성되었으며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후과가 빚어지게 되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도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생산자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리리론을 정립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장군님께서는 경제관리를 인민대중의 리해관

계와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고 그를 위한 방도와 대책도 세우시였습니다.

널리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현시기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실리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와 같은 독창적인 경제관리론에 기초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은 셋째로, 그 참신한 시대성에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의 기상에는 시대정신과 그것을 체현한 인간의 녀이 어리어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과 리론은 반드시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와 추이를 옳게 반영하고 현실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맞는것으로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리론가들의 활동이 시대성을 체현한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상리론가들의 활동이 시대성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해당한 시대의 특징과 그 발전추세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평가하며 거기서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상한 통찰력과 정치적식견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시대의 특징과 그 발전추세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평가하시고 시대와 혁명의 긴요한 요구를 예민하게 포착하신데 기초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언제나 시대발전의 추이와 함께 그 전망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시며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으로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새롭고 참신하게, 보다 휘황한 미래를 창조해나갈수 있게 전개해나가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리론활동에서의 참신한 시대성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90 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정치구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와 그 후의 국제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세력사이의 사생결단의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선군사상리론을 체계화하신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정립하신 업적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사상리론적업적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당건설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정립하신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는 혁명적당의 건설과 그 활동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전로정은 승리의 열쇠도 당건설과 그 활동에 있고 실패의 원인도 당건설과 그 활동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위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혁명적당을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원리와 원칙을 밝혀주는 옳바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마련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의 당건설리론은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밝혀졌지만 사회주의집권당건설에 관한 리론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사회주의집권당건설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정립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1960 년대에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당을 변질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주의집권당건설리론에 대한 절박한 주객관적요구를 자신의 사상리론적과제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일관하게 벌려오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이룩된 사상리론적업적을 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1960 년대에는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며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원리와 원칙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1970 년대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최고강령을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리론과 당의 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당의 기초축성에 관한 이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으며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1980 년대에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당의 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상과 령도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전당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는 한편 당건설분야에 나타난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의 반혁명적본질을 폭로하고 주체의 당건설이론의 순결성을 고수하시였습니다.

1990 년대에는 수령의 당건설이론을 초석으로 하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리와 원칙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는 한편 좌절된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력사적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서거 이후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이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지난 40 성상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정립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이론에서 초석,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선행한 당건설이론에서는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적당이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적부대라는 사상은 내놓았지만 수령의 당이라는 사상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중심을 이루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리와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당의 본질과 당건설이론을 수령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해명하시였습니다.

당의 본질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이론은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과 당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해에 기초하고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이며 그것은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습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과 당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추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수령과 당은 혼연일체이지만 수령은 어디까지나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는 지위에 있으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그것  
을 실현해나가는 지위에 있다는것입니다.

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리론에는 당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을 건설할데 대  
한 문제, 둘째로 당을 근로하는 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  
한 문제, 셋째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  
데 대한 문제, 넷째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다섯  
째로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을 꾸릴데 대한 문제, 여섯째로 온  
사회에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일곱째로 온 사회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의 본질로 부터 출발하시여 당건  
설의 기본원칙과 중심과업, 당활동의 기본임무와 기본사명을 비롯하  
여 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사회주의집권당건설리론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방법론에 기초  
한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로 정립하신것은 당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빛나는 사상리론적업적으로 됩니다.

끝으로 올해 공동사설이 특별히 강조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 돌이 되는 해에 당의 령도업  
적을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요구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 40 성상에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업적을 자신의 연구활동과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결정집행에  
사회과학자답게 특색있게 이바지할것을 결의다집니다.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정치의 기본내용과 그 위력의 본질

강 희 봉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완벽하게 계승하시어 그것을 선군정치라는 독특한 하나의 정치리론, 정치방식으로 승화, 정립하심으로써 인류의 정치사상리론과 정치실천의 새로운 견지를 개척하신 위대한 정치리론가, 천재적인 정치실천가입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제2의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고수투쟁, 조미핵대결전의 전과정에 걸친 정치실천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목격해 왔으며 세계에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정치의 본질과 선군정치의 창시로 이룩한 사상리론적업적, 선군정치가 발휘하고 있는 위력의 본질이라는 세가지 각도에서 집약적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1.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정치는 기성의 정치사상, 정치리론의 틀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전혀 새로운 정치리론이고 정치방식입니다.

기성의 정치학서적들은 그 서술체계에서 군사문제를 도외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선군정치가 전면으로 제기한 혁명군대의 위치와 역할문제는 개인적인 연구제마로 취급되기는 하여도 하나의 학문분야를 구성하는 체계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사문제를 취급하는 군사학에서도 사정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군정치가 선포되었을 때 학자나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과거의 독일이나 이탈리아, 혹은 일본을 편상하면서 선군정치를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권정치》요 《군사국가》요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상, 리론이 창시될 경우 구식리론에 사로 잡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지적제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타파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하기보다도 새로운 사상, 리론을 기성리론의 틀을 써가면서 부정하는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으며 그 길을 택한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군정치가 세계정치의 마당에서 무시할수 없는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었으며 경해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거나 이를 원리적으로 깊이 연구하려는 경향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의 본질과 그 위력, 선군정치창시의 역사적의의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이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합니다. 》

여기서 군사선행의 원칙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현대국방이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 사회생활 등 민족의 생활영역전반에 비끼게 되는 거대한 창조사업으로서 민족의 실력의 총체, 단결의 총체이며 창조적부의 총체라는 인식으로부터 군사를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내세우고 국방을 국가정치의 중핵으로 내세운다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 나간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주체세력의 편성에서 《선군후로》의 원칙을 견지하여 이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 나간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한 혁명주체세력의 낡은 편성원리를 극복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관계의 본질적속성 즉 적대관계의 해소와 인민의 전반적리해관계의 일치로부터 형성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계급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계급을 비롯한 각 사회세력을 힘(위력)의 견지에서 대하고 그 견지에서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며 이에 기초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체세력을 편성하여 전반적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 나간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부르조아정치학이나 사회학, 맑스-레닌주의 정치학이나 전략전술론 등 기성의 정치리론과 전략전술론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것들입니다.

선군정치는 오직 기성의 틀에 구애됨이 없는 창조적인 사색과 천재적인 지략을 겸비한 위대한 사상리론가, 정치실천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독창적인 정치리론이고 정치방식입니다.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 정치학, 이론의 보물고를 한층 풍부히 하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오직 사회주의와만 결부되는 정치사상, 리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론은 사회주의정치학의 체계속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계급적모순을 비롯하여 부르조아사회가 여러 사회생활 영역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적대적모순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정치분야에서 그러한 모순을 결정적으로 극복할수 있게 하는 보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주체세력편성의 새 견지를 개척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사회의 밑뿌리를 가장 강력한것으로 만들어 주는 길을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사상리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군정치는 혁명군대의 위상을 새로 밝힘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견지에서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 주었습니다.

선군정치는 또한 인류가 수백년 동안을 풀지 못한 정군(정치와 군사 혹은 정권과 군권) 관계의 옳바른 정립의 길을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사상리론과 정치실천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주었습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국가정치는 정치를 할 권한인 정권에 의하여 행사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국가가 등장하여 정치가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활동분야로 정립된 시기부터 원래 정치와 하나로 이어져 왔던 군사가 점차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정치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 즉 정군관계가 언제부터 정치실천에서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문헌적자료는 아직도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어떤 학자는 《군국주의》란 말이 처음으로 나타난것이 1816년부터 18년에 걸쳐 씌여진 샤프트네부인의 회고록에서 였으며 개념으로서의 군국주의라는 말은 그 기원을 크롬웰 밑 1688년의 《명예혁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군사적요소에 대한 문민적요소의 기본적인 우위를 보장한 근대영국이 등장했다고 쓰고 있다.

또 1689년에 작성된 영국의 《권리장전》이 상비군의 존속과 병력문제를 국회가 가지는 《승인의 권한》에 의하여 의회의 통제하에 놓은것으로 보아 세계가 주권국가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군대가 상비적인 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하나의 사회세력을 이루게 된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와 군사의 분리가 발생하였으며 정치실천상 군사의 정치개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부상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군관계를 옳게 정립하는 문제가 매우 오랜 역사적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군관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에 대한 《문민통제》의 실현문제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전쟁의 세계적인 확대,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등장은 국가운영에서 무력을 배경으로 한 군대의 지위와 발언권을 비상히 강화하게 되었으며 군대의 정치개입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형을 군사정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적라라하게 나타나군 하는 군대의 실력은 각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군대에 대한 모종의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그 제도적장치를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것이 이른바 《문민통제》이며 군대의 《중립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자본주의사회가 가지는 본질적성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산물이며 그것은 사회적모순의 폭발적순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군관계의 종국적해결이란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정군관계의 옳은 정립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 70 년의 역사를 가진 사회주의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가들도 군대의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적지 않게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로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는 문제로 보았지 그 이상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랭전시기 소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군사정책의 기본을 미제를 축으로 한 제국주의동맹의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을 마련하는데 두고 왔습니다. 때문에 군사건설이 주로 미제의 무력증강에 대한 군비경쟁의 형태를 띠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무슨 《인류의 공통적인 리해관계》라는것을 내세우면서 미국을 《동반자》로 보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총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군대의 위상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들에서는 정군관계의 정립문제가 당의 군대에 대한 관료적통제로 둔갑되어 당 군관계가 통제자와 피통제자의 관계 다 시말하여 당과 군대가 대치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것입니다.

그 결과 소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군대는 사회주의가 붕괴되어나가는것을 보면서도 당을 옹호하고 그것을 막으려고도 하지않았으며 결국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게 되었던것입니다.

물론 쓰딸린이 인민과 군대는 일체화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것, 다민족국가인 로씨아에서 군대는 제민족의 자유와 해방, 우호와 융합을 실현하는 군대라는것, 군대는 당을 노동자, 농민과 연결하는 최대의 기구, 인전대이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국의 인민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는 유일한 전로씨아적 집합점이라는것 등 군대의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지적은 정군관계의 옳은 정립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이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군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에 기초한것은 아니였으며 단편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한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주권국가체계를 가지게 된 이래 수백년에 걸쳐 해결을 기다리고 온 정치와 군사(혹은 정권과 군권)의 옳은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 70 여년의 사회주의력사에서 해결하지 못해 온 정군관

제의 해결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은 선군정치의 창시에 의하여 전면적인 해결을 본 정군관계의 근본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바로 《군대이자 곧 당》이라는 정치철학과 《군대이자 곧 인민》이라는 정치철학, 그리고 《군대이자 곧 국가》라는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정군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언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선군정치는 당군혼연일체, 군민의 혈연적일체에 기초한 당, 군, 민의 3 위일체 (이것이야말로 《군대는 곧 인민이고 당이고 국가》라는 정치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를 실현함으로써 제기되어 오던 정군관계의 가장 정당한 해결을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창시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조선의 국력을 비상이 강화하여 제국주의 침략책동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권국가체계가 형성된 이래 외교는 언제나 힘을 배경으로 해왔으며 따라서 힘이 강한 나라가 외교에서도 승리하고 힘이 약한 나라는 언제나 외교의 희생물로 되어왔습니다.

오늘의 조미대결전도 역시 힘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한마디로 국력대 국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국력에 대한 기성의 리해를 가지고서는 조선이 주동을 쥐고 미국을 궁지에 몰아 놓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정확히 리해할수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성의 리론은 국력이란 국가가 대외활동에서 이러저러한 목적을 추구할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동할수 있는 힘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르조아학자들은 그러한 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으로써 인민의 의욕과 능력, 정부의 질과 지도력, 령토와 인구의 크기, 경제력과 군사력, 천연자원과 자연지리적조건, 외교력 등을 올리면서 국력이란

이것들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미중앙정보국의 이전 정보담당부장관, 국무성정보조사국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방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지타운대학에서 세계국력연구부장을 하던 레이에스 크라인이란자는 국력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수량화하고 자신이 《개발》한 《방정식》을 리용하여 80년대 세계각국의 국력을 치수화한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조선과 미국의 국력비교는 1979년을 기준으로하여 《기본요소와 경제력》에서는 5대 246이며 여기에 군사력을 포함시킬 경우는 15대 434이라고 하였으며 이상의 요소들에다 《국가전략과 그를 추진할 정책집단의 능력과 의지, 국민의 정치의사의 완고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최종치수》에서는 21대 304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는 미국에서도 전략분석의 제1인자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의 국력평가를 위한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의 핵에너르기의 방정식의 《지정학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조미외교전에서 조선이 련전련승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으며 그의 비극은 결국 국력에 대한 리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력이란 무엇인가.

원래 국가의 운명은 전적으로 정권의 존립과 그 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 국력이란 바로 정권의 힘, 위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권의 힘, 위력은 바로 그가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경제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정치적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쇠퇴몰락할수 밖에 없다는것은 국가의 흥망성쇠로 엮어진 세계력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국가가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의 질량적수준에 있는것입니다.

랭전종식후의 류레없는 고난속에서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거듭해 온 조선의 힘, 국력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옳은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아야 앞에서 본 수수께끼도 정확히 풀수 있는것입니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혁명주체세력의 기둥으로, 핵심세력으로 내



세우고 군대의 선봉적, 돌격대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사상과 각오, 의지와 신념, 투쟁기풍과 도덕에 이르는 전면적인 당군일치, 군민일치를 실현하여 당, 군, 민의 3 대력량을 최상의 높이에서 결합하여 막강한 사회정치적지반, 혁명의 주체세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군, 민의 3 대력량의 일치는 일심단결의 현실적모습이며 일심단결의 위대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에 기초하여 수령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에 불타면서 영웅적위훈으로 떨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형성되는 실천적인 과정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위협을 가하더라도 아무리 엄혹한 경제재제를 가하도 수령을 중심으로 혼연일체를 이룩한 당, 군, 민의 죽음을 각오한 항거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조선이 전국이래의 난국에 처하던 시기, 경제가 혹심한 피해를 입어 인민들이 굶기와 싸워야 했던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 미제는 조선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웨쳐대면서 앞뒤를 보지 않고 전면적인 군사, 정치, 경제공세를 들이대어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압살책동을 격파하여 미제를 련전련승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실천 다시말하여 령도의 결실이였습니다. 조선의 힘은 바로 이 과정에서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주체 85년 3월에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 최고사령관포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일제의 100 만관동군을 물리치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 미제와 그 15 개 추정국가군대를 타승한 영웅적 조선인민과 일당백의 인민군대가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과 군대와 인민이 혈연적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이 있다. 》

이 최고사령관포고는 진짜 국력이란 무엇이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거둬온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국력의 핵심은 호화로운 경제의 모습, 어마어마한 무기의 진렬장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를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국력의 핵심부분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지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조선의 힘이 있으며 선군정치의 위력의 본질이 있는것입니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시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발휘하도록 하심으로써 조선은 세계유일초강대국을 자칭하는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파시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령도업적에 대하여**

림 왕 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년간은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위업을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령도의 나날인 동시에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신 총련령도의 탁월한 40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령도활동을 벌리신 그해 12월 14일에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력사의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귀국실현 5돐에 즈음하여 총련이 삼가 올린 축기와 축하문, 지성어린 선물을 친히 보시고 만족하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당 일군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뻐하실 때보다 자신이 기쁜 때가 없다고 하시면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령도활동을 시작하신 이후 처음으로 총련사업에 대하여 가르치신 로작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여야 한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습니다.

《오늘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시켜주신것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인민을 강하게 키우는 길이며 혁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40년에 걸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련령도의 자욱은 이날에 밝히신 주체로선견지의 확고한 사상에 근본을 두고 전개하고 구현하여오신 과정이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서서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업적의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이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령도업적에서 특징은 우선 주체로선에 대한 사상리

론적해명을 주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40 년전에 벌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로선의 역사적의의와 정당성, 로선관철의 원칙적요구를 밝혀주고제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의 민족문제, 해외교포문제에 대한 해답을 맑스-레닌주의고전에서 찾으신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견지에서 새롭게 해명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이 깔려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경험하시였고 당시 재일조선인운동앞에 걸림돌로 놓여있던 일국일당제원칙의 부당성을 론박하시고 그것을 몸소 바로 잡아 주신 수령님의 거대한 령도업적이 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 주체로선이 나오게 되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떤 기성리념이나 관념도 혁명의 질곡으로 되어있다면 대담하게 타파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어 재일동포들은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로선전환방침이 나왔을뿐아니라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체로선이야말로 주체의 철리를 구현한 해외교포운동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항구적인 교범으로 된다고 천명하시였습니다.

주체로선에 담겨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정식화하시고 그 보편성을 론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로선전환방침의 산아이며 해외교포운동사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첫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은 언제나 이 주체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습니다.

이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로선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인 요구도 천명하시였습니다.

가장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수령론에 기초하여 전개하고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입니다.》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습니다.

주체로선견지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제기되는것은 자기 수령에 충성다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은 조선혁명의 한부분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민족적애국운동이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총련은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고 충성다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해나가기 위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이미 40 년전에 밝혀주시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을 위한 사상리론적초석을 닦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이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령도업적에서 특징은 다음으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력사의 중요한 갈피마다 가장 명철한 방침과 과업을 제시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밝혀주신것입니다.

지난 40 년간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은 여러번의 단계를 거쳐왔으며 격동적인 내외환경속에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진하여왔습니다.

그동안 총련이 로선상 오류를 범하지 않고 주체의 궤도에 확고히 설수 있는것은 우리에게 주체로선이 있고 그를 견지하고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60 년대를 거쳐 70 년대에 들어서면서 총련은 전반 애국과업수행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일찌기 없었던 양양기에 들어서고있었습니다.

그러한 1970 년대초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고 사회주의총진군을 령도하시면서 총련도 김일성주의기치를 추켜들고 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총련이 주체의 궤도에서 더욱 강화발전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일동포들의 구성에서는 1 세가 줄어들고 2 세, 3 세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며 상공인들이 기본군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동화경향이 짙어가고 남조선의 반동들과의 유착관계가 깊어져 총련에 대한 탄압이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역사적으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이 로작의 맨 처음에 전개하신 내용이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내놓으시고 총련을 결성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주체로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잘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을 혁명화하고 동포들을 애국화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총련의 조직건설과 사상건설 그리고 애국사업의 전반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하고 국제반동들의 공격의 화살이 주체조선에 쏠렸으며 특히 민족대국상을 치르게 된 우리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1990 년대중반은 우리 총련앞에도 참으로 엄청난 난관이 조성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맞이한 총련결성 40 뉘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도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시고 총련의 로정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위한 전면적인 과업을 천명하시었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21 세기의 문어귀에 다달은 1999 년에는 총련이 변화된 세계정세와 사업환경, 총련실정에 맞게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전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었습니다.

사업방법전환의 방침은 총련이 주체로선을 오늘의 실정에 맞게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방침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40 년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내외환경이 변하고 주체로선전지에서 중요한 대목에 이른때마다 주체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거듭 가르치시고 그를 관철해나가는 명확한 기준과 방도를 명시하여주시는 총련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이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령도업적의 특징은 다음으로 총련사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선과 방침은 그를 관철하는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현실에 구현됩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전환방침이 관철되고 총련이 결성된 력사적위업에는 오직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며 투쟁한 한덕수의장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었습니다.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해올수 있었던것도 역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다하는 핵심이 있고 총련사업의 주체가 꾸려졌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40년간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제를 세우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그 사업을 일관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총련의 민족교육사업과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방침도 거듭 주시면서 총련사업의 주체가 강화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40년간 소년단의 나 어린 학생으로부터 청년들,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각종 강습을 받으며 또 조국에서 여러 대표단과 예술단도 보내주시는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와 배려는 한량이 없습니다.

특히 총련일군들과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이 아버지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특전을 베풀어주시고 자신께서도 친히 가까이 불러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심으로써 수많은 핵심들을 손수 키워주시였습니다.

총련사업의 주체를 강화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총련이 중앙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는 체제를 세워주신것입니다.

조국을 떠나 진행되는 해외교포운동을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현지에서 구현해나가자면 지도핵심을 꾸리고 그 지도하에 사업하는 체계가 필수불가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의 지도핵심을 아끼시고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주체 84(1995)년 10월 20일에 하신 말씀 《총련조직건설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

한 여러 기회에 총련이 중앙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사업해나가도록 간곡하게 가르치시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령도활동을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하게 총련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가장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령도에서 이룩하신 이 위대한 업적의 생활력은 지난번 총련 제 20 차 전체대회에서 뚜렷이 과시되었습니다.

일심단결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로 장식된 총련 20 전체회의의 결정과 개정된 총련강령에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 전환적국면을 맞이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빛내여 나갈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려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련은 결성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 절정에 달하고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동포들을 현혹시키는 심각한 그때에 가장 첨예하게 제기된 사상리론분야의 문제는 결국 주체로선을 견지하느냐 버리느냐 하는 날카로운 로선적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총련이 자기의 생명인 주체로선을 견지하지 않고 양보하였다면 력사와 후대앞에 커다란 죄를 지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40 년에 걸치는 총련령도과정에 주체로선에 대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고 매시기마다 그를 견지하고 관철하는 방침을 제시하여주시었으며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중앙지도부를 비롯한 총련사업의 주체를 꾸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이 있으므로 하여 난국은 타개되고 총련의 력사의 한 봉우리를 내다볼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주동적으로 들어설수 있었던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체대회는 새 세대들이 총련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조직적인 힘을 돌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회보고에도 있는바와 같이 새 세대란 3 세, 4 세입니다.

오늘의 세대교체는 총련사업의 주체의 구성과 형성의 견지에서 큼직하게 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아래 20 세기를 장식한 1 세, 2 세로부터 장군님의 품안에서



태어나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21 세기의 주역인 3 세, 4 세에로의 교체입니다.

3 세, 4 세는 수령관, 조국관, 조직관, 인생관의 형성과정이 앞선 세대들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는 세대인 동시에 그들의 행동력과 과학기술지식, 활동령역은 비상이 크고 넓습니다.

이러한 세대에로의 교체를 조직적으로 준비하는것을 선포한 20 전대회는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해나가는 주체를 강화하는 력사적인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20 전대회가 주체로선고수, 승리의 대회였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총련 20 전대회결정을 앞장서 관철하고 주체로선을 견지하며 애족애국운동을 전진시키는데서 요구되는 상리론활동과 선전활동을 더욱 단수가 높게 벌려 자기가 선 초소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련령도를 받들어나갈것을 결의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여론》에 대한 정치학적리해

조 민 기

에스빠냐의 철학자 오르테가가 정치에서 차지하는 여론의 지위와 역할을 뉴턴물리학의 중력과 같다고 비유한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여론문제는 정치운영 혹은 통치에서 핵심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의 주되는 정치수법인 여론정치를 정치학적 시각에서 개관하고 금후 일본의 정치동향과 국가향방을 가늠하는데서 중요변수로 작용하는 일본국민들의 정치의식경향 (이데올로기적경향) 의 분광을 시론적으로 제기한다.

## 1.정치와 여론

여론에 대한 정의는 여론연구자의 수만큼 각이하다는것이 학계에서는 정설로 되고있다. <sup>1</sup>

개념정의의 혼란과 분렬속에서도 그것들의 공통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종합을 하면 여론 (世論 public opinion ) 이란 어떤 사업이나 사회적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나 평론 (集合的意見) 이라고 정리할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여론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마다 존재하며 그 부류 (genre) 는 다양하다.

정치학적개념으로서의 여론이란 정치적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집합적의견이다. <sup>2</sup> 정치학에서 말하는 여론은 정치적의견과 정치적태도로 구분된다.

정치적의견은 단기적으로 형성되며 가변성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것으로서 내각지지률을 들수 있다. 레컨데 小泉内閣발족 당시인 2001년 내각지지률은 80 %대였으나 2002년 1월 田中眞紀子外務大臣更迭을 계기로 40 %대로 하락하였고 2002년 9월 조일수뇌자평양회담 직후에는 60 %대를 회복하였다.

정치적의견에 비하여 정치적태도는 중장기적으로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불변적이다. 말하자면 정치적가치관이나 신조, 이데

<sup>1</sup> 『現代政治学辞典』ブレーン出版、1998年、p 1030 参照

<sup>2</sup> 공적문제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의견→쟁점 (issue)

올로기와 결부되고있는 정치적립장으로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 립하는 행위를 규제하는것으로서 나타난다.

력사와 현실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사회제도를 막론하고 《民의 소리》를 무시하여 정치적지배와 통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으로 보면 여론의 시대는 근대시민사회의 성립과 발전에 련동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시민혁명이후 여론문제는 하나의 정치력으로서의 고유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었으며 민중의 감정을 자기편으로 하면 만사가 성공한다는식의 정치철학이 유럽세계에 널리 확산하게 되었다. 여론의 정치는 근대유럽에서의 자유주의, 의회제도, 정당정치, 신문 등의 발전과 련관되면서 보편적인 정치리념으로 정착하게 되지만 그 담당자는 부르췌아계급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 계급적한계를 벗어난 여론의 정치는 《다수자의 전제(專制)》를 야기한다는것으로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한 대중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론의 정치는 한편에서는 계급적계층적기반을 확대하고 다른편에서는 마스콤뉴니케이션의 비약적발전, 정치선전의 기술적고도화와 제도적장치화, 그리고 정치쟁점의 복잡화 전문화와 더불어 여론은 일반국민차원에서 유도, 조작, 동원되는 기호가 증대하였다.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민의를 《수렴》하고 가능한 여론을 《존중》하지 아니할수 없다.

그것은 의회제(대의제) 민주주의와 여론의 호상관계에서 그 원리적인 해답을 찾을수 있다. 의회제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못하는 현실적제약속에서 국민(유권자)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형태이다. 이러한 간접민주주의제도하에서 선거 즉 국민(유권자)들의 동향(투표행동)이 정권전략에서 생명선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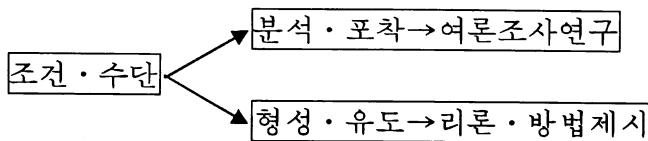
정권의 장출이나 유지가 유권자들의 투표결과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동향과 직결되는 여론의 분석, 형성, 유도는 정권전략에서 필수화된다. 레컨데 1960년 케네디 대 닉슨의 대통령선거는 미국 대통령선거력사에서 처음으로 량진영이 사전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선거전략을 기획한 선거였다고 하며 당선한 케네디는 여론조사회사인 하리스사에 의거하여 이후 선거전략을 추진하였

다고 한다.

…いまや民主主義のもと、多様な主体による言論活動に媒介された集合的意見としての世論の支持は、競争的主体にとって、最高の自己正当化根拠となっている…<sup>3</sup> …世論調査を重視し、世論喚起に全力を注ぐ。そのため、世論喚起に効果あるパフォーマンスを心掛ける。…<sup>4</sup>라는 견해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정권전략에서 다른 하나의 측면은 여론정치에 의하여 《국민적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집행이 담보된다는것이다.

이처럼 여론은 현대사회에서 정치지배의 기반이며 정치의 지배자들은 여론을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하며 통치의 정당성의 근거를 여론의 지지에서 추구한다.

## 2.여론정치의 조건과 수단



### 1) 여론조사

여론을 조사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해결되었다는것이 공인된 견해이다. 실증주의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여론조사를 선도한것은 미국이다.

과학적여론조사의 확립은 Gallup poll(가럽프조사)를 기점으로 한다.

력사적경과를 보면 초기에 여론조사는<sup>5</sup> 지상투표식방법으로 신문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과학적방법론이 결여된 결과 실패가 많았다고 한다.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모든 대상수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통계학적 sampling (표본추출) 리론이 유효한 방법론으로 상정되었다. 이 리론에 의하면 母集團 (본래의 전체의 집단)에서 일정한 척도로 無作為로 추출한 sample

<sup>3</sup> 山川雄巳『政治学概論』有斐閣ブックス、1994年、p 394

<sup>4</sup> 中曽根康弘『天地有情』文藝春秋、1996年、p 422

<sup>5</sup> 기원은 1824년 미국 신문사 하리스버그·펜시르바니어가 실시한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표본)은 허용(誤差)범위내에서 母集團의 속성을 집약하고있으며 그것을 추정할수 있다는것이다. 이 이론은 공장의 품질관리 등에서 활용되고있다.

통계학적 sampling 이론에 기초한 최초의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조지 가랴프(1901-84)에 의하여 실시된것은 1934년 11월이었으며 1935년에는 그에 의하여 아메리카여론조사소(Gallup 사)가 설립되었다.

가랴프조사가 과학적여론조사로서의 립지를 확고한것으로 한것은 1936년 루즈벨트 대 란던의 대통령선거였다. 전국적인 잡지사인 테라리다이제스트스가 43%의 득표율로 루즈벨트의 낙선을 예상한것과는 반대로 가랴프사는 層化抽出法으로 선정한 2000명의 sample로부터 루즈벨트의 54%의 득표율에 의한 당선을 예상하였는데 결과는 가랴프사의 예측대로 되었다.

그후 가랴프사는 반세기이상 그 유명한 가랴프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있으며 현재 50개이상의 나라들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미국에서는 가랴프사 뿐만아니라<sup>6</sup> 그 밖의 여론조사회사들, 연방과 주의 정부기관, 대학과 연구기관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있으며 그것을 역사적으로 축적하고 정리보관, 재이용하기 위한 data bank (미시건대학, 코네티컷대학 등)가 있다. 다른 자본주의선진국들에서도 제2차대전후 미국의 영향속에서 여론조사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이 있지만 널리 알려지고있는것은 아사히, 마이니찌, 요미우리 등의 신문사, NHK, 정부광보실 등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이다. 18살이나 20살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시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문제들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의견의 분포상태를 조사결과로(=여론으로서) 발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일련의 흐름에서 대전제로 되는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로 조사하는가를 명확히 하는것이고 조사방법은 母集團에서 無作為로 추출한 sample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調査票에 기재된 질문사항을 제기하고 조사대상의 의견을 정취, 기록하는것, 그리고 有効調査票의 data를 컴퓨터처리할수 있

---

<sup>6</sup> 1947년 여론관계자들로 미국여론조사협회 결성

도록 가공하며 분석프로그램패키지를 리용하여 통계분석한다.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은 여론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는것이다. 그러나 유도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리용하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국민을 오도하는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 2) 이론

여론정치를 안받침한 전형적인 이론은 리프만 (Walter Lippmann 1889-1974) 의 저서 《여론》 (1922년) 에서 제기한 견해이다.

그의 이론에서 기초를 이루고있는것은 의사 (擬似) 환경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의사환경이란 환경에 대한 인간의 표상, 영상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의사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환경을 직접 인식하는것이 아니라 머리속에 그려진 환경에 대한 표상을 인식한다고 전제하였다.

그에 의하면 여론이란 의사환경에 대한 인간의 견해, 주의주장으로 되는것이다.

그는 …それぞれの人間は直接に得た確かな知識に基づいてではなくて、自分でつくりあげたイメージ、もしくは与えられたイメージに基づいて物事を行なっていると想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れわれが見る事实は…われわれがものを見る習慣に左右される…われわれはたいていの場合、見てから定義しないで、定義してから見る…<sup>7</sup>라고 하면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의사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되는 요인을 stereo type (인식속에 그려진 鑄型・認識的枠組・先入見) 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stereo type 를 씌으로써 판단이라는 두뇌로동을 절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것을 피할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정치적엘리트는 이러한 stereo type 를 능숙하게 조작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할수 있다고 전개하였다.

그는 일반대중은 현실에서 유리된 의사환경만을 보고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엘리트는 환경 그 자체를 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일반대중이 정치에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던것이다.

---

<sup>7</sup> w・リップマン『世論』掛川トミ子訳、岩波文庫(上) p 42 p 110 p 111

정치수법의 전지에서 본 그의 이론의 맥락은 미디어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제공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일정한 認識의 枠組를 주입시킬수 있다는데서 여론정치에서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문제를 부각시켰다.

### 3) 미디어의 정치기능연구<sup>8</sup>

20 세기에 들어오면서 신문, 라디오 등의 마스미디어의 보급은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자각시켰다.

초기 미디어의 기능연구는 미디어의 강력효과를 주장(強力效果論)하였다.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상정한 이론은 《皮下注射모델》, 《即効藥理論》이라고 불리웠다.

에리조사<sup>9</sup>이후 1940 년대 미디어의 限定效果論이 주장되었으나 1950 년대 미국에서의 텔레비의 비약적인 보급을 배경으로 강력효과론이 부활하고 현재에 이르고있다.

1960 년 미국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들간의 텔레비토론이 4 번 방영되었다. 선거전에서 뒤진 케네디는 텔레비토론에서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줌으로써 형세를 역전하여 결국 0.2 %의 득표율차로 당선되었다. 이처럼 텔레비의 등장은 한정효과론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1970 년대 강력효과론의 부활추세를 가속화시킨것은 미디어의 議題設定機能 (agenda setting)연구로 호칭된 일련의 연구이다.

의제설정기능이란 미디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보도하는 경우 그 문제들을 보도하는 량과 빈도, 신문지상의 위치나 방송순서에 따라 어느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하는것을 암묵리에 독자, 시청자들에게 전달주입하는 기능이다.

레컨데 미국에서는 1990 년 만위기 (灣岸危機) 부터 91 년 만전쟁까지의 시기에 의제설정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전국넷트의 텔레비뉴스에서 만위기의 보도량이 증대한 후에 여

<sup>8</sup> 久米郁夫·他『政治学』有斐閣、2003 年、p 427-434 参照

<sup>9</sup> 1940 년 콜롬비아대학 연구자들이 오하오주 에리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중 그들의 사회경제적지위, 거주지역, 종교 등 사회학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것으로 분석. 에리조사이후 여론연구는 레컨데 나치스의 전체주의상황도 미디어를 리용한 대중선동 뿐만아니라 대중측에 전체주의를 수렴할수 있는 여러 소지(素地)들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것을 더 강조하였다.

론조사회답률을 보면 만위기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문제》로 인식한 회답자가 늘어난것으로 보고되었다.

미디어의 강력한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은 실증연구에 의하여 심화되었다.

최근년간 주목을 받고있는것으로서 認知심리학에 기초한 정보의 프레임잉 (framing) · 프라이밍 (priming) 효과에 관한 이론이 있다.

프레밍그효과란 미디어가 어떠한 frame 로 문제를 보도하는가에 따라 정보수신자인 시청자는 동일한 사실이라도 서로 다른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레컨데 구유고의 내전을 《분쟁 frame》로 보도를 하면 정보수신자들은 그것을 그 지역내부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해하게 되며 비전투원의 희생을 강조하는 《인권중시 frame》로 보도를 하면 셀르비아가 용서할수 없는 살륙행위를 감행하고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게 된다.

프라이밍그효과란 미디어가 보도하는 뉴스는 의제설정기능을 할뿐만아니라 수신자인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치적쟁점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준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이다. 레컨데 미디어가 수상의 업적이나 정치적수완을 보도하는 경우 그것을 외교적측면에만 집중하게 되면 보도의 수신자들인 국민들은 외교에만 주목하여 수상을 평가하게 된다.

인지심리학에 의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동기-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정보 cost》를 낮추기 위하여 어떤 일정한 枠組속에서 이해하자고 하거나 수신하는 정보의 어떤 일정한 측면에만 사고를 조를하고 이해하여 문제의 전체상을 평가하는 간편한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프레임잉그나 프라이밍그의 효과에 관한 이론은 인지심리학을 전제로 하고있다.

1970 년대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과 함께 강력효과론을 추동한것은 도이칠란드의 노이만에 의하여 제창된 《沈默의 螺旋》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개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인식하였을때 고립되는것을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킨다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디어는 다수의 의견을 보여주는 窓으로 되기 때문에 미디어의 활용문제가 이 이론



의 각도에서도 재인식되고있다.

상술한 미디어의 효과리론들이 미디어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을 넘두에 둔것이라면 장기적인 영향에 착목한것으로서 함양효과(涵養效果)리론이 있다.

텔레비의 영향<sup>10</sup>에 대한 연구로부터 사람들이 텔레비를 장기적으로 시청하면 어떤 일정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는것이 그 내용이다.

정치가들속에서는 주요 미디어를 리용하여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상대진영에게는 불리하게 정보조작을 하는 수법이 황행하고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스피ن(spin)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인용하는것,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것, 억측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는 표현술, 불리한 정보를 두드러지지 않게 공표하는것, 중대한 사건이나 정보를 대량적으로 류포시켜 다른 정보로 은폐하는것 등의 정보조작수법이다.

…スピンの技術のほとんどが、米国大統領の執務室で発達してきた。…現在のブッシュ政権は、メディア操作の役割を拡大し、ハリウwoodsの技術の多くをミックスすることによって、さらに新しいレベルに引き上げた。…イラクでの主要な戦闘が終わったという単純な発表さえも、冒険アクション映画のようにお膳立てされ、ブッシュがその場に「トップガン」のように登場し、イラク民主化の空虚なレトリックで締めくくった。これはマルチメディアを駆使し、高度に演出されたスピンである。…最近では社民党の辻本清美前衆院議員の逮捕に合わせて、消費者金融の大手、「武富士」に警察の内部資料が流れた事件で、警視庁が先月十八日に地方公務員法(守秘義務)違反容疑で警視正を書類送検するなどの処分を行ったスピンがある。…<sup>11</sup>

---

<sup>10</sup> 岡田直之『世論の政治社会学』東京大学出版会、2001年、p140-144 参照

다른 마스미디어와 비교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텔레비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第一に、テレビは政治事情をリアルに映し出すことが出来る、と一般に信じ込まれている…第二に、…事件や出来事の現場に居合わせるかのような臨場感を抱かせることができる…第三に、…政治的公平性の原則を標榜することで、メディアの党派性にたいする視聴者の緊張感を弛緩させる…第九に、…テレビがマスコミ報道のリード・オフマンの役割をはたすようになり、マスコミ報道の枠組みや基調を方向づける傾向が顕著になってきている…第十に、…大衆の情念や国民感情を母体にした政治的雰囲気や意見の風土を醸成するのに絶大な威力を発揮する… …多くの人々が情報源として日常的にテレビに接触し、テレビを世界のまどとして政治上の出来事や争点を認知し理解しているとしても、まことに自然の趨勢といわざるえない。

<sup>11</sup> 『週間金曜日』2003 8. 29 (No473) p 12 p 15

스핀은 미디어의 효과기능을 수법화한 권력층의 전형적인 대어론 조작이다.

### 3.일본의 정치의식동향

랭전종식후 일본은 《보통국가》에로의 지향을 본격화하여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주의적인 대내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국민의식차원에서 가속화되고있는것이 나쇼나리즘이다.

가속화의 양상을 시론적으로 특징짓는다면 重層化・深化・拡散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하 篠原一東京大学名誉教授의 견해<sup>12</sup>를 참고로 정리하여 보았다.

①젊은층에서 확산하고있는 나쇼나리즘-《petty (작고 귀여운) 나쇼나리즘》이다. 평소에는 《국가 의식》이 결여되고있으나 레컨데 축구시합을 응원할때는 돌연히 《히노마루》를 흔들면서 《기미가요》, 《닛봉, 닛봉》을 열광적으로 부른다.

력사, 선악(善惡), 내용을 따지기전에 국가라는 상징아래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열광적으로 일체화한다.

자료<sup>13</sup>에 의하면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미일안보조약에 의하여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켜준다고 대답한 20 대는 88 %로서 다른 연령층에서 나타난 70 %대를 능가하였다. 그리고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개헌찬성파가 급속히 증가한 1993 년 여론조사 이후 현재까지의 추위를 보면 20 대의 찬성파는 전체의 찬성파의 수치보다 더 늘어나고있다.

20 대의 정치의식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이벤트적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쇼나리즘지향의 발로이며 《보통국가》에로 줄달음치는 국가주의정책수행의 정치적인플라가 다음세대에 착실히 구축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일본사회에 날로 확산하고있는 《침묵(silent) 보수시민》의 존재이다.

<sup>12</sup> 篠原一『市民の政治学』岩波新書、2004年、p 143—p 150

<sup>13</sup> 読売新聞世論調査部『日本の世論』弘文堂、2002年、p 189—p 191

보다 지향성이 뚜렷하고 의식화된 나쇼나리스트집단으로서 그 실례로는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의 지부조직을 들수 있다.

《침묵 ( silent ) 보수시민》의 공통성은 80 %가 평범한サラリ맨이라고 한다. 언행에서의 특징은 그들 호상간에서 열기면 토론이 벌어지는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한다는것, 관심은 《(국수주의적인) 저명한 강연자》의 이야기를 듣는것이며 그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찬동하는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들이 흔히 쓰는 말속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는 《보통의 감각, 전통, 건전한 나쇼나리즘, 일본인으로서의 긍지, 이시하라신다로》이며 그와는 반대로 《좌익, 아사히, 마스콤, 북조선》이란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통용되고있다고 한다.

이시하라도지사가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망언사건을 거듭 저질러도 도지사선거에서 당선된 배경에는 이러한 보수시민의 존재가 상상이상으로 사회의 뿌리깊게 확산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③활동적인 나쇼나리스트집단의 대두이다. 이는 국가주의적인 정책과 그 실현, 운동과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는 기성의 전통적인 조직, 보수반동세력과 함께 사회의 여러층에 분포되고있는 신세력이 속한다.

신세력중에는 일본수상의 야스푸니공식참배실현이나 신추도시설건설반대를 표방하는 《英靈にこたえる会》에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하는 등 풀뿌리차원에서 행동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있다.

국정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시기 조선에 대한 재제법안을 발기하고 국회통과를 전면에 나서서 추진하고있는 등 신세대 매파국회의원들이 서서히 정치적립지를 강화하고있다.

두말것없이 민족배타주의적과격집단인 신우익의 존재도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종교우익의 동향이다. 이 흐름에 각계층이 결속되면서 신우익세력으로서의 정치적영향력을 장성시키고있다.

…最近、教科書問題や教育基本法の改悪、あるいは女性や在日の人々の権利伸長に対抗して反動的な運動を活発に進める勢力に、宗教団体が目立つようになってきた。彼らは、豊富な資金力や組織力を活かしてさまざまな運動を支えているばかりでなく、その大きな動員力によって、選挙において多くの議員や一部の首長などにも影響をもつに至っている。そのため、現在の中

央や地方の政治状況を分析する上で、宗教界の動向を分析する視点は不可欠になってきた。…

…「日本会議」とは…全国 9 ブロック 47 都道府県になんらかの組織をもつ日本最大の右翼組織である。…これに協力する「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現在 242 名)を持ち…、…1997 年に「日本を守る会」と「日本を守る国民会議」が合体されて結成されたのだが、…「守る会」の方は、神社本庁・生長の家・仏所護念会・モラロジーなど宗教・修養団体が中心となり、そこに曹洞宗管長・日蓮宗管長なども名前を連ねる宗教関係者中心の団体であった。…<sup>14</sup>

미국에서 기독교원리주의를 주장하는 종교우익이 세력을 장성시키면서 부쉬행정부 네오콘정책의 확고한 정치적기반으로 대두하고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후 일본에서도 신보수주의의 대내외정책실행이 엄중한 국면에 들어서게 될것이 예상된다.

일본국민들의 정치동향에서 특징적인것은 나쇼나리즘의 심화학과 함께 정치적무관심의 증대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무관심 (political apathy) 이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두표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며 정치과정에 대한 무반응의 상태를 말한다.

라스웰의 이론을 참고로 한다면 정치적무관심은 무정치적무관심 (apolitical: 정치이외 분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탈정치적무관심 (de-political: 정치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환멸로 끝남으로써 정치에서 멀어지는 경우), 반정치적무관심 (anti political: 무정부주의자처럼 신념에 의해 정치를 부정하는 경우) 으로 분석할수 있다.

일본경우 선거두표율의 저하등으로 나타나고있는 정치적무관심은 무당파층의 확대에 집약되고있다고 볼수 있다.

1990 년 12 월부터 2001 년 12 월까지 근 10 년동안의 무당파층의 추위<sup>15</sup>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24 %로부터 42.6 %로, 20 대는 37.8 %로부터 63.1 %로, 40 대는 26.4 %로부터 49.9 %로, 60 대는 16.7 %로부터 32 %로 증가하였다.

정치적무관심이 일본에서 증대하고있는 요인으로서는 첫째로: 政官

<sup>14</sup> 「歴史認識と東アジアの平和フォーラム」東京会議 (2003 年 2 月 27 日～3 月 1 日) 上杉聡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事務局長) 『日本における宗教右翼の台頭と「つくる会」「日本会議」』報告概要

<sup>15</sup> 読売新聞世論調査部 『日本の世論』弘文堂、2002 年、p 192

業의 철의 삼각동맹과 그 강화에 의하여 거기에 리익과 정치가 독점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정치 특히 정치에서 유도되는 리익에서의 소외가 구조화되고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 抵抗이데올로기의 쇠퇴에 있다. 랭전중식은 탈이데올로기화를 촉진시켜 左派勢力에 대한 違和感이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현체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른바 확신이 정착되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정당간 이데올로기적차이는 해소되고 정당과 그 정책의 쟁점은 정치무대밖에서 후퇴하였다. 반면에 정당정치대신 여론을 의식한 populism 정치가 전면에서 등장함으로써 인기정치, 정치의 이벤트화가 일상화되었다.

셋째로 : 生活保守主義의 심화이다. 전후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소득증진과 복지정책이 계통적으로 추진된 결과 국민들속에서 《중류화》를 달성하고 《중류의식》이 정착되었으며 이것을 토양으로 사생활주의가 뿌리깊이 내리게 되었다. 사생활주의의 심화에 의하여 일반시민들은 사회적문제와 단절하게 되었으며 그들속에서 《빈곤에 의한 련대》가 상실해나가고있다.

적지않은 노동운동, 시민운동도 생활자, 소비자로서의 생활보수운동으로 되어나가고있다.

넷째로 : 정치가관리문제가 정치불신을 야기시키고있다.

### 맺음을 대신하여

무당파층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당파층은 2001년 참의원선거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였다. 그해 8월의 추적조사에 의하면 참의원선거에서 무당파층의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정형(投票先)을 보면 그중 40%가 자민당에, 18%가 민주당에, 9%가 공명당에 투표하였다.<sup>16</sup> 자민당은 무당파층에서도 민주당을 크게 떨구고 지지를 받은것이다. 류추한다면 무당파층-정치적무관심층의 존재는 자민당의 일당집권안정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될것이다. 일본사회의 총보수화와 우경화, 《보통국가》에로 치닫는 보수정권의 안정조건으로 되는 정치적무관심의 확산, 여기에서 예측되는 이 나라의 정치동향은 대일본제국의 악몽을 상기시킨다.

<sup>16</sup> 同上, p 91 - p 92

## 일본유물론철학연구사에 있어서의 田中吉六의 《주체적유물론》이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최 권 일

현재 일본유물론철학이 직면하고있는 초미의 문제들,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과제들은 산적(山積)되어있다. 그러한 제문제들에 대한 유물론철학의 응답은 빈곤하고 소극적인 양상을 띠고있다고 하지않을수 없다. 특히는 현시기 일본사회의 급속한 반동화흐름을 허용하고있는 중요요인의 하나가 유물론철학의 사상리론적저항력의 약화에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골적인 우경화경향과 그에 대한 사회적대항력의 부재라는 사태를 조성시키게 한 책임의 중요한 일단이 사상으로서의 유물론철학의 학적진화의 침체에 있다는것이 문제의식이다. 사상으로서의 유물론철학의 침체, 그 근본요인의 하나를 패전직후 벌어진 《주체성》론쟁의 경과속에 본다.

### 1. 패전직후 전개된 《주체성》론쟁의 배경과 그 내용

패전직후 여러분야의 지식인들을 망라하여 《주체성》론쟁이 벌어지게 된다.<sup>1)</sup>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문제자체는 전후 일본에서 새롭게 제기되었던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철학의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력사의 객관적필연성과 실존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실존적개체성에 관한 문제, 개인의 주체적자유성에 관한 문제 등이 그렇다. 그러면서도 패전직후 《주체성》론쟁이 활발히 벌어진데는 보다 특수한 사정과 배경이 있었다. 전후 일본에 마련된 《민주주의》가 일본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쟁취된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외적요인에 의하여 마련되었다는 사정으로부터 그 민주주의제도를 감당해낼수 있는 인간주체를 빠른 시일내에 확립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회력사적요청을 그 배경으로 한다는것이다.<sup>2)</sup>

《주체성》론쟁은 우선 문학의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근대문학》동인들은 우에 올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sup>3)</sup> 민주주의적인 사회나 문학을 건설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간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

서는 전쟁중의 체험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개인의 내부에 잠재하는 강한 《에고이즘》에 주목하여야 하며 새로운 인간주체는 《에고이즘》을 직시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함으로써만 확립된다는 주장이다.<sup>4)</sup>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에고이즘》의 인정( 긍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휴머니즘》으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상은 천황제파시즘의 횡포속에서 유린당하고 질식당해왔던 인간개성의 해방에 대한 요청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천황제파시즘앞에서 무력했던 민중의 측 특히는 지식인에 의한 자기변호라는 특수한 부의 측면을 지니고있다고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적인간》은 《에고이즘》적인간을 원리로 함으로써 전후 근대적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했던 일본에서 근대적인간확립을 위한 《에고이즘》 긍정은 추상적론의의 차원에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와 일본인민앞에 절박하게 제기된 천황제파시즘의 청산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요청을 외면하면서 민주주의를 감당할수 있는 인간주체형성을 주장한 《근대문학》동인들의 사상적전망은 일본사회의 진정한 출로를 밝히지는 못했다.

문학계에서 제시된 《주체성》론쟁은 이후 주로 철학의 영역에서 《주체성론》과 《정통파맑스주의》사이의 론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되게 된다.

《주체성론》진영의 주된 문제의식은 전전과 전후를 일관하면서 《정통파맑스주의》가 객관주의적경향을 극복못해왔다고 보는데에 있다. 그들의 주장은 론자에 따라 약간 뉴언스의 차이는 있으나 주되게는 《정통파》의 사고가 역사의 객관적법칙성을 절대화하여 역사적운동에 참여하는 인간의 《주체성》을 소홀히 한다고 보는데 있다. 그렇다면 《주체성》론은 《정통파》의 《객관주의》적편향을 극복하는 출로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주체성》론진영을 견인한 梅本克己는 인간의 《주체성》의 궁극적인 지탱점은 《윤리》에 있으며 바로 《윤리》문제야 말로 맑스주의의 공극(空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윤리》확립의 계기를 《근원적리기(利己)》의 부정이라는데서 찾는 관념적, 추상적론의에 머무르게 된다.<sup>5)</sup>

같은 《주체성론》진영을 형성하던 丸山眞男、眞下信一들도 《정통파》의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치, 의미, 윤리 등에 관한 문제들을 유물론적으로 근거지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그것들은 다 제언에 그친다. 《주체성》론이 제시한 가치, 의미, 윤리 등

통털어서 인간을 실천으로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제의식형태는 그 물질적기초나 원천을 밝히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물론적기초를 획득할수 있다. 그러나 《주체성론》진영의 연구는 그러한 방향에는 나가지 못했다.<sup>6)</sup> 이에 대하여 《정통파》는 《주체성론》일반을 《개인》을 사회력사나 계급관계에서 떼내고 추상적으로 고찰한다고 비난하면서 《소부르쥬아적개인주의》, 《소부르쥬아적수정주의》의 딱지를 붙이고 배격한다. 그러면서도 《주체성론》이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응답은 포기하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그 불만의 도수가 높아지고 그것이 사적유물론의 이론과 결부되기만 하면 사회변혁이 이루어진다는 락관주의에 빠져있었다. 田中吉六의 일련의 연구는 《주체성》론쟁이 결착을 보지못한채 시들어가자고 하는 40년대 말기에 등장하였다.

## 2. 田中吉六의 《주체적유물론》이 제시한 방향

田中吉六의 연구를 보기에 앞서 문학의 영역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을 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湯地朝雄는 일본의 전후문학속에서 野間宏와 大西巨人의 두작가를 심도있게 대비연구하였다.<sup>7)</sup> 湯地는 천황제파시즘의 폭풍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전후를 《자기공정》으로부터 시작하자는 주인공을 자체소설에서 설정한 野間에 대하여 전쟁중의 반동적상황속에서 자기의 무력에 절망하여 극단한 《자기부정》으로서의 《니히리즘》에 빠지면서도 그러한 자기를 넘어서자고 하는데로부터 전후를 출발하자고 하는 주인공을 설정한 大西를 대치시키면서 《자기공정》과 《자기부정》의 사상적의미를 도려낸다. 野間가 소설「暗い絵」속에서 그린 주인공 深見進介는 전쟁시기 반파시즘투쟁,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면서도 그 속에 투신 못하면서 《〈자기〉라는것에 고집》하고 《에고이즘에 기초한 자기보존》의 냄새가 하는 《자기완성》을 추구해온 《자기》를 긍정하는데서 전후의 걸음을 시작한다.<sup>8)</sup> 이와 정반대로 大西가 소설「精神の氷点」에서 그린 주인공 水村宏紀는 전쟁중 천황제파시즘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자기》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모든 가치와 도덕을 부정하는 니히리즘의 화신으로 되어 그것을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어두운 정념(情念)에 사로잡혀 온갖 악덕



을 다한다.<sup>9)</sup> 그렇듯 궁극의 니히리즘에 빠지고 실천한 주인공이 전후의 들뜬 사회적분위기에 대하여 강한 이화감(違和感)과 허식성(虛飾性)을 느끼고 극도의 모대감속을 해매이면서도 점차 극복의 길을 찾게 되는 바로 여기에 湯地는 니히리즘을 극도로 밀고 나감으로써 그 니히리즘자체가 거부하는 심연(深淵)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도려내자는 작자大西의 의도를 본다. 湯地는 野間의 《〈자기긍정〉의 사상》을 《근대문학》이 제시한 《에고이즘》 긍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것으로 보고 그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인간의 심연(深淵)에 육박한 극도의 니히리즘을 거친 《자기초극(超克)》의 프로세스속에 일본의 진정한 출로를 전망하는 大西의 사상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한다. 이렇듯 大西의 문제제기는 전후 일본사회와 민중이 거쳐야 할 《자기부정》이라는 필수적제기를 그 심정적형태로서의 극도의 《니히리즘》이라는 모양으로 뚜렷이 주제화하고있으면서도 당시는 문단에서 거의 묵살당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진의는 일반화되지 못하고있다. 더군다나 당시는 문학과 철학과 목적이식적인 교류가 형성안되어있었다는 사정과도 관련하여 大西의 문제의식은 직접적으로는 철학계에 수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 언급하자고하는 田中가 大西에 의해 제시된 일본재생을 위한 《자기부정》이라는 문제의식을 뚜렷이 주제화하고있었다고는 보지 못할것이다. 그러면서도 田中吉六의 《주체적유물론》은 전후 일본재생에 대한 大西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당시 유물론철학의 측에서 무한히 접근한 유물론적표현 혹은 유물론적론리였다고 볼수있다.

그러면 田中가 제시한 《주체적유물론》이란 과연 어떤 사상인가. 그 이론적알맹이를 보도록 한다.

그의 이론의 방법적기초는 武谷三男의 《기술론》에 있다.

武谷는 기술을 《로동수단의 체계》라는 실체개념으로 파악하자고 하는 일련의 견해를 《객관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술》을 실천개념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기술이란 인간실천(생산적실천)에 있어서의 객관적법칙성의 의식적인 적용》이다. 田中は 武谷의 《기술론》을 방법적기초로 하여 인간《실천》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을 소홀히하는 《정통파맑스주의》진영이 가지는 이론적 오류와 제한성을 간파해나간다. 그는 맑스의 초기로작의 연구를 통하여 《정통파맑스주의》진영이 인간이라는 인자(因子)를 역사발전의

필연성에 환원, 해소시키는 경향을 《객관주의》적편향으로 비판하고 《객체와 주체의 변증법》을 제창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연의 변증법성이 자연속에 자연과 대립하는 인간을 산생하고 주체와 객체의 호상작용으로 발전한다는것이며 사회의 근본적모순은 주체와 객체와의 모순으로서 자연과 이어져있다. 이 근본모순이 일정한 력사적형태에 있어서는(레들어 자본주의사회) 특수한 모순의 모양을 취하면서 실존하는것이다.》<sup>10)</sup>

그는 주체와 객체와의 호상작용이라는 《마당》에 있어서 발휘되는 주체=인간의 능동성의 원초적형태를 《수고적·leiden 능동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밝힌다.

《우선 인간적자연은 그 신체적조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환경적자연이 분렬하고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환경적자연이 직접 마련해주는 자연제대상 -야생의 열매같은것은 따로 해서- 에 의하여 그의 욕구가 어느하나도 충족이 안된다는것을 의식한다는것이다. 그의 욕구의 대상은 모두가 그의 생명의 보전(保全)과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불가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에 대하여 결핍(欠乏)을 느낀다. 이렇듯 환경적자연으로 부터 고뇌를 감수함으로써 자기자신이 그 자연으로부터 부정당하고있다고 그는 느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수고적(受苦的)고뇌를 받아안게 되는 존재인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하여 인간적자연은 그의 욕구의 제대상과 환경적자연사이의 분렬, 대립, 즉 모순을 의식하며 따라서 자연부터의 부정태(否定態)인 결핍상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자고 하는 정열적인 의욕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인간적자연은 자기의 생사와 관련된 장면에 직면하게 되기때문에 실천적결의(實踐的決意)를 갖게 되는것이다. 환경적자연으로부터 규정된 〈피한정(被限定)〉으로서의 자기로부터 환경적자연을 규정하는 〈능한정(能限定)〉으로서의 자기의 립장에 서게 되는것이다.》<sup>11)</sup>

田中の 《수고적능동성(受苦的能動性)》의 사상속에서 《자기부정》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불리우는 《무엇인가》가 보다 선명히 부각이 된다. 즉 《자기》에 대하여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대상과의 부단한 호상작용을 통하여 늘쌍 대상에 의하여 부정되는 《주체》가 그 《부정》을

능동적인 《자기부정》으로 자기내화(自己內化)함으로써 그것을 대상에 대한 실천적능동성으로, 정열로 전화시킬수 있는 바로 이 전환적결절점(轉換的結節點)이 《주체》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능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大西의 《철저한 자기부정으로서의 니히리즘》의 철학적,유물론적론리를 보게 된다.

《객관주의》는 이러한 론리를 이해하지 않는다. 《객관주의》는 어디까지나 력사발전의 필연성, 법칙성을 절대화하고 인간주체를 그 필연성관철의 상대적인 구성인자(構成因子), 법칙관철의 형식적담당자로 밖에 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력사발전의 필연성에 대한 외면적파악만이 이루어지고 그 내적련관구조, 내적호상작용, 즉 주체와 객체와의 호상작용을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더군다나 《객관적유물론자》들은 자신을 력사적필연성을 밖에서 관찰하는 인식주체로, 주관으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주체성》론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즉 인간개체의 내면에 추상적인 관념주체를 설정하지 않을수 없는 《주체성론》과 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량자는 결국은 객관세계와의 물교섭적인 관념적실체로서의 《주체》=《주관》을 설정함으로써 《자기부정》의 계기를 원리적, 이론적차원에서 상실한다. 《자기부정》의 원리를 안가지는 《주체》는 필연적으로 《자체》의 《무유성(無謬性)》을 믿게 된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사상적상관성(相關性)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실천적차원에서 본다면 《객관주의》는 객관적법칙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력사발전의 주체형성》이라는 그 법칙관철의 근본조건을 마련하는 작업, 대중을 진정한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을 홀시하면서 정세발전에 과중한 기대를 걸거나 혁명정세의 성숙을 기다리는 대기(待機)주의적편향을 낳으며 반대로 《주관주의》는 개개인이 가지는 심정, 정서를 절대화하고 조직적결속을 거부하거나 개개인의 표면적, 생활적요구를 일면적으로 중요시하는 추종주의적경향 등을 낳게 된다.

이상 본바같이 田中の 《주체적유물론》은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사상적상관성을 간파하고 비판하는 공정을 통하여 전후 일본재생을 위하여 거처야 할 필수적계기

로서의 《자기부정》을 위한 유물론적틀거리를 제시한 유일한 사상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의 이론은 천황제파시즘에 의한 민중의 수고(受苦)를 어떻게 주체적능동성으로 전화시켜나갈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의식에 귀결되며 그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전(戰前)을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필요성을 철학적유물론의 영역에서 요청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게 볼때 그의 이론은 일본의 유물론철학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 획기적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위치에서 취급이 안되고 공격, 묵과당하였으며 따라서 그 사상사적의미도 이해됨이 없이 매몰되게 되었다.

### 3. 《주체성》론쟁이후

《주체성》론쟁이후의 유물론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을 피하고 몇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는것으로 대신한다.

1950 년대의 정치적반동을 배경으로 한 침체기를 거쳐 1959 년에 이르러 일본각지에서 지역분산적으로 진행된 유물론연구의 전국적집결을 위한 유물론연구단체들의 연락기관으로서의 《日本唯物論研究協會》가 설립되지만 심각한 내부모순에 의하여 1965 년말에 활동을 정지하게 된다.<sup>12)</sup> 이후 1973 년까지는 다시금 정치적반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국적인 움직임은 조직되지 않았다. 1973 년말에 이르러서 점차 유물론연구의 전국조직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재개되고 5 년간의 준비기를 거쳐 1978 년 7 월 5 일 유물론연구를 위한 전국조직인 《唯物論研究協會》가 창설되어 현재에 이른다.

1978 년 이후 오늘까지의 《唯物論研究協會》진영에서 벌어진 론쟁으로서 《실천적유물론론쟁》을 올릴수가 있다. 1980 년대 전반기에 벌어진 이 론쟁은 당시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동구사회주의의 위기적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맑스주의유물론의 근본성격을 《정통적맑스주의》가 제창하는 《변증법적유물론》으로 보겠는가 혹은 《실천개념》을 중핵으로 하는 《실천적유물론》으로 보겠는가 하는 문제를 초점으로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맑스의 《포이엘바흐에 관한 테제》, 그 속에서도 특히 맑스가 거듭 언급한 《실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천적유물론론쟁》역시 《정통과맑스주의》가 극복을 못한채 계속 내포하여왔던 객관주의적편향에 대한 시정요청이 반영된 논쟁이었다고 볼수 있다. 田中의 이론을 통하여 이미 밝혀진바 같이 《실천》이라는것이 결국은 인간주체가 환경세계와의 호상작용과정에서 발휘하는 능동적특수성을 표현하는 개념임으로 그러한 특수성을 담보하는 《주체성》의 유물론적해명이 여기서는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적유물론론쟁》은 《주체성》론쟁에서 제기된 인간의 《주체성》의 유물론적과약이라는 과제를 뚜렷이 주체화하고 그것을 충분히 저작(咀嚼)하지못한채 지내왔다는 일본유물론철학연구에서의 역사적편향이 사회주의의 위기적상황이라는 기연(機緣)에 의하여 형태를 바꾸고 부각이 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1980 년대말로부터 1990 년대에 이르러 유물론연구는 그 존속근거를 근간에서 흔들리우는 커다란 시련인 유럽사회주의의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속에서 유물론의 복권과 재생을 시도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난다.

石井伸男은 1992 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에서의 유물론철학연구상황을 개괄하고 연구전망을 피력하고있다.<sup>13)</sup> 그에 의하면 유럽사회주의붕괴사태에 직면하여 세계적으로 맑스주의연구에 있어서 크게 세가지 립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사태를 《사회주의의 위기》로는 안보고 《쓰딸린-브레 지네프체제》의 파탄으로 보면서 종래의 자신의 립장을 무조건 견지하자는 경향이며 둘째로는 맑스주의적유물론을 더이상 유지못하는것으로 보고 그것을 상대화 혹은 포기하는 길로 나아가자는 립장이며 셋째로는 맑스주의유물론의 《파라다임전환》을 모색하는 길, 즉 유물론을 현대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재구성하자는 대응이다. 내용적으로는 학설사의 재검토, 이론적파라다임의 재구축, 현대세계가 제기하는 제문제들의 해결에 대응하는 이론적내용의 충족 등이다. 그를 위하여 종래의 《쓰딸린주의철학》(정통과맑스주의)을 철저히 비판적으로 총화하며 자립적으로 자기책임을 지는 사고태도를 확립하는것이 불가결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뚜렷이 제시안되어있으면서도 《다원적민주주의(多元的民主主義)의 시대》, 《전통대이단(傳統對異端)》이라는 대립구도가 무의미화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유물론철학발전방향에 대하

여 1980 년대전반기의 《실천적유물론론쟁》을 올리면서 현시기 《사회주의의 위기》는 《변증법적유물론》파가 이론실천적으로 궁지에 빠지거나 파탄되었다는것의 표현이며 따라서 앞으로 《실천적유물론》을 원리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가일층 심화시키는것이 요구되고있다고 전망한다. 이와같은 石井의' 론고에는 일본에서의 유물론철학이 《사회주의의 위기》상황에 부딪치면서 어찌서 그렇게도 동요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날카로운 동찰, 연구사적동찰의 결여되어있다. 즉 패전후 일본이 처한 특수한 사회력사적상황이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보답할수 있는 방향에서 유물론철학이 심화되지 못해왔다는것, 그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가 《주체성론쟁》시에 田中가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유물론철학계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 문제성은 1990 년대후반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에서의 유물론철학연구동향을 통하여 뚜렷이 현재(顕在)화되어나가고있다. 변혁의 론리, 혁명의 론리로서의 유물론연구는 계속 수세에 빠져나가고있다. 반대로 최근시기 《唯研》진영에서 나온 특징적인 연구경향을 몇가지 올린다면 유물론을 기계론적으로 비속화하여 가치니히리즘에 귀결시키는 견해 14), 유물론을 현실직시의 철학적자세만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왜소(矮小)화하는 견해 15), 유물론을 그 어떤 운동리론의 구성부분으로 상대화하여 위치규정하는 견해 16) 등이며 심지어는 《경험비판론》의 모작(模作)과 같은것까지도 나타나고있다. 17) 반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의 복잡성, 애로성을 반영하고있으며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반동화세력과 일본의 우경화세력에 대한 진보, 혁신의 추의 대항상황을 측정하는 일정한 척도로도 된다.

## 맺는말

그 어떤 나라와 인민, 특정한 인간집단, 개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존재는 자체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며 그 역사의 마디마디에서 외면해서는 안되는, 자체의 전존재(全存在)를 걸고 립해야 할 존재의 심연(深淵)과 직결된 특수한 국면, 상황에 처우하게 된다. 그러할 때 현상과 본질, 표면과 심연을 이어주는 《사상》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정신적영위(營為)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저꾸로 보면 사상이 없는 인간집단은 력사의 표면에서 부유(浮游)할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사상의 생명력은 사상자(思想者)가 자신의 사상적영위에 있어서 《사상의 령역》의 불가침성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상자의 량심이라는것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것을 저는 田中吉六, 大西巨人의 사상하는 태도에서 배울수있다.

# 【주】

- 1) 『戦後史の最初の5年間におけるもっとも象徴的な思想史的出来事、それは主体性論争であった。』(『戦後思想史の再検討—人間と文化篇』 東京唯物論研究会編 P32)
- 2) 「・・・戦後日本における民主主義革命のもつ一つの大きな特徴は、それが日本国民自身の内から、下からの力によってかちとられたものではなく、少なくともそのきっかけは占領軍という外からの、上からの力によって与えられ、切り開かれたものだ、と言う点にある。このことは社会的・制度的な変革を支える主体的・人間的な条件の立ちおくれ、主体の内部における弱さを意味する。したがって、こうした立ちおくれや弱さを克服して民主主義的な社会や文化の建設を担うべき人間的主体を確立するということ、内面的な自己変革をとおして与えられた自由を自分のものにしてゆくということが、民主主義革命の推進という基本的な課題に関連して、社会的にも、一つの重要な課題として提起されざるをえないことにある。まさしくこの点に当時の日本における社会史的・思想史的な状況のもつ特殊性があったのであり、社会革命と同時に人間革命をということが主張されたのも、個人の主体性の問題があらためて提起され、多くの人々の関心をひきつけるにいたったのも、こうした特殊な問題状況い由来するものだったのである。」(「古田光『主体性論争(上)』』『現代と思想』季刊13号 P260～261)
- 3) 『創刊同人氏名を敗戦をむかえた年齢とともに紹介してみると、山室静(39)、本田秋五(37)、平野謙(37)、埴谷雄高(35)、荒正人(35)、佐々木基一(31)、小田切秀雄(29)、となり・・・』(『戦後日本の思想』講談社文庫P12)
- 4) 「古田光『主体性論争(上)』』『現代と思想』季刊13号 P258 )
- 5) 梅本克己『唯物論と主体性』(『現代思潮者』)
- 6) 『世界』(岩波書店 1948年 2月号)
- 7) 湯地朝雄 「『戦後文学の出発』野間宏『暗い絵』と大西巨人『精神の氷点』」(スペース伽邪)
- 8) 野間宏 『暗い絵・崩解感覚』(新潮文庫)
- 9) 大西巨人『精神の氷点』(みすず書房)
- 10) 田中吉六 『主体的唯物論への途』(季節社 P164～165)
- 11) 田中吉六 『わが哲学論争史 一労働と思索一』(農山漁村文化協会 人間選書50 P123～124)

- 12) 『哲学の分野では、50年代の十年間というのは率直に言って、個々の理論家が自発性にもとづいて各個に仕事をやっている以外にはマルクス哲学者たちの組織的な思想闘争というのはおこなわれていないわけです』（『前衛』討論 1965年12月号P116）
- 13) 石井伸男 『唯物論はどこへ向うのか？』（『理想』92, NO.648 理想社）
- 14) 渋谷治美 『唯物論と価値ニヒリズムーノモス批判と宇宙論からの接近』（『唯物論研究年誌』第7号 青木書店）
- 15) 佐々木 力 『近代日本の唯物論哲学再考』（『思想と現代』NO.40 柏書房）
- 16) 田畑 稔 「21世紀と『批判的唯物論』の存在理由」（季報『唯物論研究』第82号）
- 17) 瀬戸 明 『現代において唯物論とはなにか』（『思想と現代』NO.40 柏書房）



## 조선의 지리적조건에 대한 몇가지 평가(21보:발취) -제 2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과 전자공업의 배치를 중심으로-

사 공 준

제 1 차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1998~2002)에 이어 현재 제 2 차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2003~2007)이 추진중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전자공업의 발전단계와 최근시기의 동태, 전자공업의 배치의 일부에 대하여 논한다.

### 1.전자공업의 최근시기 동태

전국과학기술자대회(2003/10/29~30)의 결의사항은 정보기술과 노나(NT)기술, 생물공학, 그리고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의 육성문제였다.

또한 에네르기공업 3 개년계획(2003~2005)과 800 만 t 식량증산 5 개년계획(2003~2007)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공업의 발전없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이 강조되었다.

로동신문(2003/11/10)은 현시기 해결하여야 할 과학기술문제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 기본내용은 과학 및 첨단과학분야의 육성, 유능한 과학자양성, 과학기술자들격대의 활동강화 그리고 IT, NT, 생물공학, 첨단기술을 도입한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것이다. 그를 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20 대, 30 대의 청년박사를 수많이 양성하는것이다.

공동사설(2004/1/1)은 새 세기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일체화되어 발전하는 시대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제고와 강성대국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를 대량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실력전의 강풍을 이르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국력을 보다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2004 년도의 주공전선은 전력, 석탄, 철도운수 및 금속공업, 채취, 기계, 화학, 전재와 립업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또한 경공업의 기술개건을 추진하여 생산량과 제품의 질을 동시에 향상하는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의 논문(로동신문 2004/1/3)은 이를 위한 방책을 서술하였다.

## 2.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부문공업 및 전자공업의 지리적배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기술혁명을 계속 추진하며 생산자와 과학자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해방후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단계는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구분할수 있을것이다. 기초구축단계(해방~1960 전후), 3 대기술혁명추진단계(1961~1977 전후), 3 대정책추진(1978~현재)이다.

3 대정책이란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과의 추진단계이다.

과학기술의 기초가 구축된후 전자공업의 합리적인 지리적배치에서 뚜렷한 특징을 찾아 볼수 있는것은 3 대기술혁명추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이후시기이다.

### 1)3 대기술혁명시기(1961~1977 전후)

이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인 과학의 발전추세에 맞게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시기의 공업배치이다. 이 시기 과학기술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4 가지로구분할수 있을것이다.

#### ① 1 세대전자계산기의 시기(해방후~1950 전후)

이 시기는 조국해방전쟁시기,전후복구건설시기를 포괄시킬수 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남포통신기계공장,각지에 공작기계, 통신기계 공장과 전자,자동화기구공장들이 건설되었다.

#### ② 2 세대의 전자계산기시기(1958~1960 전후)

#### ③ 3 세대의 전자계산기시기(1963~1965 전후)

#### ④ 4 세대의 전자계산기시기(1969~1972 전후)

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3 차 회의결정(1971)집행시기이다. 이 회의에서 전자공학발전방침이 명시되었다. 이 방침에 따라 1973년 9월에 과학원산하 전자공학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반도체, 집적회로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여러 부 및 위원회에 전자공학연구소가 신설되었으며 수자식조종공작기계가 제작되었다.

### 2)3 세대의 기술혁명시기 및 5 세대의 전자계산기시대(1980~)

1980년 4월에 우리 나라 최초의 집적회로 《봉화-1130》대형전자계산기가 제작되었다. 집적회로공장건설이 개시되어 그 생산목표는 년산 10만개였다. 1987년 1월에 이 공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10종품종, 100만개생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계공업위원회>로부터 <전자, 자동화공업위원회>가 분리하였다. 이리하여 공작기계의 자동화에 주력할수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 전자공업은 크게 전환, 발전하였다. 그것을 공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3일공장(20여종의 현대적 공작기계, 5면수자식종합가공반)

희천공작기계공장(수자식조종공작기계에 로봇트를 도입)

만경대공작기계공장(기계제작공정의 전자계산기화, 로봇트화)

청진공작기계공장(기계제작공정의 전자계산기화, 로봇트화)

함흥공작기계공장(기계제작공정의 전자계산기화, 로봇트화)

통성기계공장(수자식조종공작기계, 수자식종합가공반, 생산의 흐름선도입)

희천시내의 공장들(로봇트화도입, 용접작업, 도장작업)

희천시내의 지방공업종합공장(콩크리트다짐로봇트, 농촌탈곡작업로봇트 제작)

### 3)전자공업의 지리적배치의 변화

전자, 자동화 공업의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리적배치도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즉 ①고도로 전문화된 공업 ②세분화된 공업 ③전자요소별공장 ④부품품공장 ⑤부속품공장 ⑥완제품의 규격제정 ⑦완제품의 무게제정 ⑧원료, 연료의 반입 ⑨하청공장의 출현 ⑩녀성로동력의 적극도입 ⑪공장의 환경관리문제(대기오염, 물오염, 진동, 소음)가 전면에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전망성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시내에 대규모 집적회로공장, 중규모 집적회로공장들이 건설되고 10월 5일자동화종합공장에서는 로봇트조종장치, 프로그램조종장치, 수자식종합가공조종장치, 컴퓨터수자조종선불꽃을 생산하는 분공장이 건설되었다. 또한 평양타자기공장에서는 전자계산기가 도입되었으며 평양인쇄기계공장에서도 대형전자계산기가 도입되고 설계의 자동화장치가 제작, 자동제도가 제작되었다. 청진, 함흥, 해주들에서는 자동화공업, 자동화계기, 기구제작이 활발해졌다. 6월 1일전기기구종합공장에서는 기조작기구가 생산되

고 18 개의 분공장에서 수자식조종공작기계가 제작되었다. 해주반도체공장과 단천영예군인반도체공장에서는 기술갱신이 추진되었다.

한편 지방도시들에서도 전자측정계기전문공장, 저항기, 축전기, 부분품, 부속품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공작기계공장과 일용전자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의 증대를 충족시키고 수요를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 3.최근시기의 성과와 2004 년도 전망

#### 1) 최근 시기에 제작된 주요 소프트웨어

산악(설계:평양정보센터), 혼자서학습(조선어:조선컴퓨터센터), 아리랑(집단체조:조선컴퓨터센터), 타자학교(평양정보센터), 삼천리(조-일 번역:조선컴퓨터센터), 천하제일강산(조선컴퓨터센터), 고려(조선컴퓨터센터,합영), 조선료리(조선컴퓨터센터), 은방울(경음악:조선컴퓨터센터), 회계왕(조선컴퓨터센터), 류경바둑(조선컴퓨터센터), 전설의 산, 금강산(조선컴퓨터센터), 제작(도면작성:평양정보센터), 인식(문자인식:평양정보센터), 단군(다국어인식:평양정보센터), 창덕(문서편집:평양정보센터), 금수강산(평양정보센터), 다모체프로그래밍(조선력사,풍습,전통:평양정보센터), 조선의 력사와 민속(평양정보센터), 체질과 식사(다모체프로그래밍,평양정보센터), 아침의 나라(노래방:평양정보센터),무지개(설계:평양정보센터), 글(서체:평양정보센터) 등 25 종이다.

#### 2) 최근 시기 인재육성사업

IT 교육에서는 첨단과학의 새로운 목표를 항상 점령하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힘을 돌리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는것이다. 특히 생산력의 향상,IT(정보기술)과 BT(생명공학),NT(노나기술)을 발전시키는 인재를 많이 육성하는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자공업관련연구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것이다.

2004 년도 년별 건설목표와 전자공업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새해에 가진 각도의 군중대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시:전력과 석탄, 금속증산과 철도운수의 정상화, 경공업의 생산 토대의 활용, 기술개선,감자재배,2 모작도입,도시정비

평남도:전력과 석탄부문의 시설보수, 중소형발전소건설, 새로운  
 개발, 온천군일대의 간석지조성, 염전개발, 안주시도시정비,  
 스사용의 주택건설, 닭공장과 오리공장의 현대화  
 평북도:태천 4 호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건설, 경공업설비의 현대  
 민소비품의 생산확대, 백마-철산수로공사  
 황남도:2 모작면적확대, 콩농사  
 황북도:2 모작면적확대, 콩농사, 레성강발전소건설, 황해제철소의  
 상화  
 함남도:추진중의 금야강발전소건설, 홍봉발전소건설, 단천 지구  
 증산, 검덕지구탄광의 증산  
 함북도:3 월 17 일발전소설비 보수, 청진화력발전소 설비보수, 어  
 전소의 조기조업, 김책제철과 성진제강의 생산증대, 무산  
 생산증대  
 량강도:백두산지역혁명사적지조성, 감자농사(대흥단, 삼지연, 백암)  
 자강도:도내의 기존발전소의 전력증대, 홍주닭공장설비 개선  
 강원도:원산청년발전소조기완공, 안변청년 2 호발전소 정상조업,  
 설의 활성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공업의 발전없이 불가능  
 이다.

### 3) 전망

①강성대국건설 실현 과제, 경제와 과학기술의 결합 ②선  
 경제건설 ③과학기술의 생산현장 밀착 ④첨단기술 연구부문의  
 ⑤과학기술 인재육성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교육의 질제고, 연구기구의 완비, 기  
 체제의 개편, 과학기술연구기관의 개편, 실리를 도모(발명, 창안에  
 보상제확립)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시기 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으로 실현화되어가고 있다. 몇가지 예를 순부동으로 보면  
 같다.

《원유공업총국》를 《원유공업성》으로 승격, 영재(수재)육  
 박사원까지의 일관교육체제확립, 첨단과학기술교육 교과목  
 선, IT, BT, NT 교육에 대한 자본투하, 시장경제교육의 강화, 《컴  
 학대학》 신설, 경제와 과학의 일체화 도입, 과학기술중시사상,

술의 단기습득(2 월간)체계의 확립, 경제의 전국적정보화실현, 과학적인 품질관리, 《지적상품제도화》(법규화), 현대화시범공장의 설정, 각 대학에 《IT 학과》신설, 각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신설, 《프로그램지도국》신설, 《프로그램센터》신설, 주요 도시에 《컴퓨터대학》, 《컴퓨터기술대학》, 《정보기술학교》설립, 《IT 중심 학부》체계의 개편, 제 1 중학교에 《수재반》설치, 각도에 《10 년제 컴퓨터수재학교》개설, 《2.17 돌격대》운동, 《평양과학기술대학》건립 등이다.

## 조선의 귀신담에 대한 연구 -귀신의 상징적인 의미-

박 순 애

한 나라의 민족성을 이해하는데에는 그 민족의 유산인 문학의 이해가 중요하며 문학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 문학의 원형이 되는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등과 같은 민족설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귀신담은 인민들의 무의식적상상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의 문학적형성력은 곧 그 나라 민족성의 이해에도 직결된다.

이 논문은 귀신담에 초점을 맞추어 귀신담에 등장하는 귀신형상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하여 해당 소설, 설화를 통하여 생각해 본다.

분석대상은 조선의 첫 한문소설인 김시습 저 《금오신화(金鰲新話)》, 첫 야담집인 류몽인 저 《어우야담(於于野談)》, 임방저 《천예록(天倪錄)》이다.

이 3가지 작품집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오신화》는 15세기 조선의 첫 소설집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일본에서 간행된 판본밖에 없어 학계에서는 국내에서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통해왔는데 가장 오래된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이 1999년 9월에 중국에서 발견되었다. 판본은 선조때 교서관의 제학을 지낸 윤춘년이 편집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판본을 보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의 하나이다.

또한 《금오신화》가 첫 소설집으로서 널리 알려져있는데 비하면 그 내용이 귀신담, 즉 조선의 첫 소설은 《귀신담》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있다는 점이다.

《어우야담》은 17세기에 류몽인이 지은 최초의 야담집이며 전대의 필기잡록류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야담문학을 선도하였으며 뛰어난 문학성으로 하여 그 국문학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문학사적의의에도 불구하고 《어우야담》은 20여종의 이본이 있다는 사실로 하여 지금까지 일부 번역본밖에 없고 따라서 교합, 교주작업도 지지부진하여 텍스트설정이 과제로 제기되어있었다.

그런 속에서 2003년 9월에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최초의 전문번역본 간행이 완결되어 원문의 오자, 탈자도 지적이 되고 이본들의 상호 보완과 교합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 이본들속에서, 그것도 한가지 판본만 해도 500 편을 넘는 설화가 수록되어있는 속에서 귀신담만을 추려내는 로고가 겨우 덜하게 되었다는데 선택의 이유가 있다.

17세기, 임방이 쓴 《천예록》도 《어우야담》과 마찬가지로 2000년 1월에 완역, 개정, 증보판이 명문당에서 출간되어 서지(書誌)적인 논의에 일단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었다. 또한 《천예록》은 귀신담을 비롯한 전기적인 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그것이 선택의 또 하나의 이유이다.

## 1. 《귀신담》이라 부르는 이유

조선에는 일본에서 말하는 요괴(妖怪)란 호칭이 없다. 또한 야담이란 호칭도 연구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구구하다.

리조시기에 씌여진 《패설》, 《야담》이라 불리우는 종합적인 화집들은 리조한문단편, 문헌설화, 패설, 잡기, 야사, 야담, 만록, 잡록, 필기, 수필, 야승 등으로 불리운다. 그 내용은 수필, 시화, 소설, 구전의 이야기를 기록한것들이어서 내용이 다양하기때문에 지금도 호칭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

설화의 구분이나 호칭을 서구의 3분법인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 비판이나 검토도 없이 그냥 따르고있다는 실정도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화와 독특한 분류체계를 형성하여왔다. 이것은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각 민족이 지니고있는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에스닉 장르》(ethnic genre)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쓰이는 설화자체의 구분의 호칭에 대한 비판이 있고 명쾌한 호칭이 없는 조건에서 이 논문에서는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편의상 《귀신담》이라 부른다. 《귀신설화》라 하지 않는 것은 소설이 대상에 들어있기때문이다.

그럼 귀신이란 무엇인가.

조선에서 《귀신》이란 아주 큰 범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귀신이란 《원시신앙, 종교의 대상인 범신론적인 존



재》(두산대백과)라 하며 죽은 사람의 혼령 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화복을 내려준다고 하는 정령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귀신을 주로 음양설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조선에서도 리익의 《성호세설》을 보면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귀는 음지령이고 신은 양지령이라 하였다.

즉 생물을 구성하는 본질은 음과 양의 두 기이며 이 두 기의 령이 그 생물에서 떠나는 경우에 귀신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귀신의 성정에 대하여 사람과 같이 지각이 있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하며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목적도 자유자재로 통과할수 있다고 하였다. 귀신은 본래 사람을 현혹하여 피상한 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조선사람의 귀신에 대한 공통된 관념은 귀신에게는 착한것도 있으나 나쁜것이 더 많다고 보았으며 형체는 없으나 인위적행위는 물론 초인간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것으로서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능히 사람과 교섭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귀신은 사람에게도 붙는다. 그것은 음을 좋아하고 양을 싫어하므로 원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붙지 않고 원기 없고 허약한 사람에게 붙는다고 생각하였다. 또 음습한 곳을 좋아하여 옛 성이나 옛 우물, 폐허가 된 절, 허물어진 낡은 집이나 문루, 어두운 동굴, 고목, 음산한 계곡 등에 살고 썩은 절굿공이와 절구통, 헌 신작, 낡은 비자루나 악기 등 오래되어 더러운것에 붙는다고 생각하였다.

귀신의 발생은 본래부터 있다는 생각과 어떤 물건에서 발생한다는 두가지 생각으로 나뉜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산천, 호수, 강가, 수풀지대, 바위틈 등 대체로 음기가 차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운 느낌을 일으키는 곳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귀신중의 신적요소는 신으로서 제신화되는 반면 신적성격을 상실한것은 귀신류로 떨어져 악의 근원이 되고 류행병이나 기타 해독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조선에서 《귀신》이란 말은 일본에서 말하는 요괴, 유령, 괴수, 괴물, 모노노케 등을 모두 포함하며 대체 인간존재를 넘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 폭이 넓다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는 《귀신》의 형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2. 귀신이 등장하는 소설과 설화

김시습이 쓴 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내용을 보도록 한다. 현존하는 《금오신화》에는 5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남원의 총각 량생이 만복사의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여 이겨서 그 절에 숨어 살던 처녀의 죽은 명혼과 결혼하는 이야기로 소설적 상상력이 풍부하다. 주인공 량생은 일찍 부모를 여윈 로총각이다. 항상 외롭게 살수는 없어 아름다운 배필을 달라고 부처에게 발원한다. 량생은 저포(놀이의 한가지)로써 부처와 내기를 하는데 량생이 이긴다. 내기 약속대로 부처는 어떤 녀인을 량생과 만나게 하는데 그 상대는 3 년전에 억울하게 죽은 녀인의 환신이다. 량생은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3 일간의 사랑은 그 녀인이 저승으로 돌아감으로써 끝난다. 그 후 량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

### 2) 《리생규장전(李生窺牆傳)》

개성에 살던 리생이란 젊은이가 하루는 선죽교 근처를 지나다가 담안의 아름다운 처녀 최랑을 발견한다. 구슬로 만든 발은 반정도 가렸고 비단장막은 낮게 드리웠는데 어여쁜 아가씨가 수를 놓다가 빠근함을 이기지 못해 바늘을 잠깐 멈추고는 턱을 괴고 앉아 시를 읊었다. 이에 매혹된 나머지 사랑의 글을 써서 담너머로 던진다. 그 뒤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부부가 된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홍건적(紅巾賊)의 란으로 최랑이 도적의 칼에 맞아 죽고만다. 리생이 부모를 데리고 먼저 도망친 후의 일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최랑이 유령으로 되어 리생을 찾아와 들은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3 년이 지난 어느날 최랑은 들에 아직도 텅구는 자기의 해골을 거두어 장사(葬事)지내여줄것을 부탁하며 리생과 작별한다. 리생은 장사지낸 후 그 길로 병이

들어 신음하다가 최랑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만다.

### 3)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평양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홍생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있다. 홍생이 평양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동강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후 부벽정에 올랐다가 기자(箕子)의 딸을 만나 밤이 새도록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나눈다. 그런데 날이 새자 그 딸은 시를 남겨두고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시마저 회오리바람에 날아가버린다. 그 이후 홍생은 상사병을 얻어 죽게 된다. 그의 시체는 며칠이 지나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자왕의 딸을 만났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 작품의 녀주인공으로 기자왕의 딸을 등장시킨것은 김시습이 당시 기자왕에 대한 한시를 많이 지은것도 하나의 리유가 된다. 그리고 기자왕이 위만에서 나라를 빼앗긴것은 단종(端宗)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것과 류사하다. 즉 홍생이 기자왕의 딸을 사모한것은 단종에 대한 김시습의 사모의 정을 표현한것이다.

### 4) 《남염부주지(南炎浮州志)》

이 작품의 배경은 경주인데 유학자인 박생이 하루는 글을 읽다가 잠박 조는 사이에 꿈속에서 염라국(炎羅國)에 들어간다. 비참한 지옥을 보고 놀란 박생은 수문장의 안내를 받아 염라왕을 만나게 된다. 염라왕은 수천년을 여기서 국가와 민족, 왕이나 친구, 부모형제에 대한 배반의 죄만을 다스린다고 한다. 박생은 염왕과 많은 질의응답(음양, 귀신의 도, 군자 소인의 구별, 고금의 치란, 속세 종교의 흑세무민적 죄악)을 주고받는데 여기에 작자의 종교관, 인생관을 박생을 통해 보여주고있다.

후반부에 가서는 염왕으로부터 염라국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다. 돌아오는 길에 수레에 올랐으나 이것이 넘어지는 바람에 박생도 넘어졌고 놀라 꿈에서 깨여났다. 두서너달 후에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신인(神人)이 나타나 염라왕이 될것이라고 했다.

이 작품은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상대 주인공으로서 녀자를 등장시키지 않고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김시습의 종교관, 국가관, 세계관 등 사상이 잘 표출된 작품이다.

### 5) 《룡궁부연록(龍宮赴宴錄)》

이 작품은 《남염부주지》와 같이 꿈속의 사건을 표현해놓고있다. 주인공 한생은 룡왕의 초대를 받아 룡궁으로 들어간다. 룡왕의 청에 따라 그는 상량문을 지어 준다. 룡왕은 뛰어난 시작에 감탄을 하고는 잔치를 후하게 연다. 잔치가 끝난 후 룡왕의 허가를 얻어 룡궁을 구경하는데 그곳에는 기이한것이 많았다. 루각이며 번개를 치는 전모의 거울이며 퇴공의 북, 비를 오도록 만드는 기구 등을 구경했다. 구경을 마친 뒤 룡왕에게 하직하고 나오려 하자 룡왕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고 나오는 도중에 잠을 잤다.

이 작품은 김시습의 일생의 한 부분과 같은 작품이다. 즉 룡궁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세종이 신동인 시습을 궁중으로 불러들인 것과 같다. 또 상량문을 지어 감탄하게 한것은 시습이 뛰어난 한시를 지어 임금의 놀라게 한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빙초를 선물받은것은 세종으로부터 명주를 하사받은것과 비유된다.

이처럼 5 편 다 유명, 염라왕, 룡(수신)등 귀신형상이 등장하며 이들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반대한 생륙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다.

《리생규장전》의 먼저 도망친 남편을 그리워하여 저승에서 돌아오는 안해의 귀신, 《만복사저포기》의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귀신, 《취유부벽정기》의 단종을 방불케 하는 위만에서 나라를 빼앗긴 기자의 딸의 귀신, 《남염부주지》의 반역죄만을 다스리는 지옥의 귀신, 그리고 《룡궁부연록》의 세종을 방불케 하는 룡왕의 형상 등은 사회적약자의 상징이며 패배자의 상징이며 무고한 죄를 입은 김시습자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 3. 《천예록(天倪錄)》과 《어우야담(於于野談)》

《천예록》에는 66편의 설화가 수록이 되어있으며 원문은 한문이며 각 설화에 제목이 달려있다. 《어우야담》에는 544편의 설화가 수록이 되어있으며 한문원문의 각 설화에는 제목이 없다. 《전통문화연구회판 전문 번역본》에는 설화제목대신 수자를 달아놓았기에 이에 따른다. 따라서 《어우야담》에는 제목이 없으니 《》속에 편의상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천예록》 66 편, 《어우야담》 544 편의 설화중 귀신담속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설화를 뽑아 검토를 한다.

《천예록》 37 話 《홍가에서 귀신에게 혼이 난 리수재(李秀才)》에는 신주, 판, 줄이 없는 거문고, 하나 떨어진 신, 가늘게 깎은 오래된 나무토막, 개가 삼은 채, 깨진 키, 몽당비 등 물건이 혼을 가지게 되어 홍가(凶家)에서 작패를 부린다.

《어우야담》 521 話 《물건에도 혼백(魂魄)이》에는 담장과 벽사이에서 징과 그릇 소리가 은은하게 난다.

이처럼 《천예록》 37 話, 《어우야담》 521 話에는 원래 사람에게 쓰이어서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낡은 물건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혼을 가지게 되어 원래 모양에 팔다리가 돌아난 인간형의 모양으로 자유로이 움직이는 귀신으로 등장한다. 이는 물건에도 넋이 있다는 원시신앙인 정령신앙을 상징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쪼꾸모가미(付喪神)라 하며 妖怪의 한 종류로 인식하였다.

《천예록》 55 話 《냄새나는 괴물을 물리친 관복고을 원님》에는 안개같은 기운이 뭉쳐서 형체를 알지 못하는 크기가 네댓아름, 길이 두길이나 되는 손도 발도 없고 두눈이 번쩍이는 냄새나는 괴물이 등장한다. 마을사람들이 형체를 모르는 악취를 귀신의 작패라 해서 무서워하는 속에서 용감한 원님이 과감하게 귀신과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천예록》 55 話는 어둠의 상징으로서의 귀신을 두려워하는 당시사람들의 소박한 감정의 표현을 엿볼수 있다.

《천예록》 35 話 《마귀(魔鬼)가 된 할미》, 36 話 《잔치자리에 나타난 아이모양을 한 두억신(夜叉)》, 38 話 《홍가에 들어 마귀를 만난 최첨사》에는 인간형의 귀신이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로 등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형체를 흉내내면서 36 話의 아이, 38 話의 푸른 옷 입은 여자, 35 話의 기괴한 할미, 늙은 비구, 여원 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다 사회적으로는 약자로서 모습이 초라하다는 리유만으로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일하면 밥을 준다는 약속을 어기거나 들어가면 안된다는 건물에 들어가면 행패를 부린다. 그 신기한 힘에 의하여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화들에 등장하는 귀신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상징이라 볼수 있다.

《어우야담》 143 話 《기근으로 죽은 여자와 하루밤을 지낸 선비 제사를 차려주고 출세함》, 146 話 《전쟁에 죽은 사람들 나무귀신이 됨》, 149 話 《억울하게 죽은 눈에 안보이는 귀신》, 150 話 《전쟁에 죽은 여자귀신 선비를 따라 서울까지 옴》도 전란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나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되어 그 슬픔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귀신행상은 사회적약자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특히 149 話 《억울하게 죽은 눈에 안보이는 귀신》은 원래 집에 붙은 귀신 즉 일본에서 말하는 이에모리(家守)가 그 집안 사람들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는 안보이지만 무서운 형상을 하고있다 하여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는 다수자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천대와 억압을 받게 되는 인간세상을 방불케 하며 오래동안 지켜준 귀신(守神)을 스스로가 죽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사악성(邪惡性)을 보여준다.

《천예록》 31 話 《마마걸린 아이를 살린 선비》, 32 話 《제문을 읽어서 한 마을을 염병에서 구한 선비》, 41 話 《권생을 시켜 편지를 전한 정공사(鄭公使)》는 마마신 즉 천연두(天然痘)의 귀신이 등장하는 설화이다. 31 話는 집사람이 제사를 정성들여 올리지 않은탓으로 노한 마마신이 그 집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이며 32 話는 생전에 무슨 한(恨)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사후에 마마신이 되어 병을 퍼뜨리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또한 41 話는 병을 걱정하여 찾아온 친구를 속이고 그에게 마마신을 옮아가게 기도한 사람이 도리어 마마신에게 죽는 내용이다.

사화와 전란, 당쟁이 거듭 일어난 란세이기에 염병이나 가물은 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것이다. 귀신행상은 무서운 병의 상징이며 무서운 병을 일게 하는 사회적불안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화는 불온한 시기에 대중들속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쉬운데 저자는 이러한 설화를 수집하면서 문말(文末)에 《마마(천연두)는 전투가 살벌하고 사나운 기운이 허공에 가득 차서 이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겨났다.》고 쓰고있다.

뱀, 구렁이의 빌미에 대하여 쓰고있는 《천예록》 39 話 《양갓음을 한 재상가(家) 뱀의 혼령》, 40 話 《무인의 아들로 태어난 요망한 구렁이》는 《천예록》 문말(文末)에 《사람은 천지만물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이다. 뱀이나 구렁이는 비록 독충이라고 하나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뱀과 구렁이는 죽음을 당하고 그 혼령이

능히 변괴를 일으켜 원썩을 갚았으나 사람은 원통하게 죽음을 당하고도 그 혼령이 능히 보복을 하였다는것은 듣지 못하였다. 가장 령물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미물만도 못한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지금의 세상을 살펴보면 죄없이 남에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혼령들은 적막하여 아무것도 갚는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하공의 옛집과 무인의 집에서 일어난 뱀과 구렁이의 일로 인하여 남몰래 느끼는바가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죽은 뱀이 원썩을 갚는다는 기이한 이야기에 대한 흥미보다 지금 세상에 대한 한탄을 금치 못해한다.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의(義)의 마음이 쇠퇴되어 문란된 세상을 저자가 아픔을 가지고 평하고있다. 즉 뱀의 귀신은 의의 마음의 상징이며 인간이 응당 가져야 할 도덕심의 상징이다.

《어우야담(於于野談)》 149 話 《억울하게 죽은 눈에 안보이는 귀신》, 493 話 《사람을 소로 변신시키는 귀신》, 516 話 《사람에게 잡힌 아이인어(人魚), 여자인어(人魚)와 결혼한 사나이》도 귀신보다도 더 사악한 인간을 등장시킴으로써 귀신행상이 인간의 량심을 상징하기도 한다. 516 話는 예쁘게 생긴 아이人魚의 기름을 짜자는 인간이 등장한다.

《천예록(天倪錄)》 13 話 《귀신들을 불러 점호(点呼)한 선비》, 14 話 《두 귀졸(鬼卒)을 거느린 임실선비》는 귀신을 부리는 사람의 설화이다. 13 話는 귀신의 이름을 장악하여 그 힘으로 수만명의 귀신을 점호하여 그들을 부리는 사람의 설화이며 14 話는 두 귀신을 부리는 설화이다. 두편 다 귀신의 재앙을 도술을 써서 금하는 내용이니 여기서 귀신행상은 정복되어야 할 역병의 상징이기도 하며 도교(道敎)에서 다스려져야 될 대상이기도 하다.

《어우야담》 82 話~101 話는 신기한 도술을 쓰는 선인(仙人)이나 도사(道士)가 귀신을 부리거나 퇴치하는 내용들이다.

원래 귀신행화는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성했으니 도술을 쓰는 도사가 레사롭게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예전에는 듣지 못했다, 괴이하다고 하고있다. 도교에 대한 저자의 립장은 선택한 설화의 종류나 평을 통한 저자의 사상의 표명을 보면 도교에 아주 가까운것이라고 추측할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왕실을 중심으로 도교가 숭배되었으며 대체로 고려의 유제(遺制)를 계승하였으나 규모는 작게 되었다. 또한 유신

들의 강경한 반대에 의하여 공식적인 도교는 쇠퇴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속에서 교리의 연구와 득도장생(得道長生)을 위한 공부를 위주로 한 수련적도교는 계속되었으며 또한 도교는 조선의 고유한 신앙과 풍속의 영향을 부단히 받았기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를 혼동해서 계속 받아드렸다.

《어우야담》 43話 《정녀부인의 영정을 찢어버리고 앙갚음을 당함》도 도교와 관련된 설화이다. 천제(天帝)의 딸을 모욕한 권필이 보복을 당하는 이야기로서 《사묘(祠廟)》, 《영정(影幀)》, 《신우(神宇)》 등이 도교관련을 나타낸다.

《천예록》 11話 《죽은 사람의 보답으로 급제한 선비》는 해골을 묻어주고, 12話 《귀신의 도움을 받은 신세회》는 산에서 리유없이, 54話 《섬에서 구슬 두 섬을 얻은 벼슬아치》는 룡의 해골을 깨끗이 해주고, 53話 《못에서 값비싼 보물을 진진 벼슬아치》는 수신(水神)의 명령으로 제각기 과거에 급제, 구사일생, 득보(得寶)하게 되는 설화이다. 산신(山神), 수신(水神)도 도교관련이다.

《천예록》 27話 《어리석은 후손을 바로잡다》, 28話 《후손에게 옳은 묘소를 알린 조상》, 29話 《생일날에 나타나 요기를 청하다》, 30話 《제사날 회식에 해진 옷을 입은 사람을 받아드리다》, 41話 《권생을 시켜 편지를 전한 정원석의 혼령》, 42話 《허적의 꿈에 나타나 편지를 써달라고 한 원만석의 혼령》, 46話 《친구의 죽은 아버지를 만난 무인》, 50話 《꿈에서 굿판에 가는 죽은 어머니를 만난 승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조상의 귀신이 등장하는 설화들이다. 이 귀신들은 후손에게 묘소를 알려주거나 죽은 아버지의 생신날 차례를 지내는것이 잘못된 제례라고 생각한 아들을 바로잡거나 장사지낸 곳이 불길하다 하여 풍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편지를 인편으로 전하거나 굿하는 종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즉 민간신앙에 습합(習合)된 도교적인 의식(儀式)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아들이나 후손을 바로잡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천예록》의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에는 모든 무당들이 경적에 등재되어있었고 무당이 생긴 연월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말세에 이르러 엉터리가 많이 생겨나서 거짓이름으로 세상을 속였다. 굿하는 법도는 술과 음식을 진설하고 신령이 립하기를 청하면 신령이 찾아와 흠향하는것이니 리치로



도 마땅하다. 어머니가 굿판에 강림하여 만났다니 아아 효자의 마음으로 이미 이런 경우를 당하였다면 그로 인해 굿을 하는것은 아마도 그만둘수 없었을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낡은 풍습을 꺼리는 사람들과 전래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친구사람들의 알룩을 조상의 귀신이라는 상징으로 풀었다.

《어우야담》 122 話 《너자의 옷을 입히우고 렴을 치르게 된 부친이 유령으로 등장하여 꾸짖음》, 127 話 《외가의 제사를 먼저 하니 죽은 아버지가 꾸짖음》, 128 話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정확한 제사날을 알림》도 그렇다.

《천예록》 44 話 《김유신의 신령에게 화를 입은 경주서생》, 45 話 《죽은 스승을 만난 서울 선비》는 이미 돌아간 그리운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설화이며 《어우야담》 156 話 《꿈에 나타나 죽자고 유혹하는 귀신》은 귀신이 산사람을 죽음으로 유혹하는 설화이다. 이 설화들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돌아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있다.

《천예록》의 저자는 대낮에 귀신이 나타난다는것은 나라가 문란되어 있기때문에 신도(神道) 즉 귀신의 도도 문란된다고 평한다. 이는 저자의 시대인식의 표현이며 귀신형상자체가 불안한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

《어우야담》 148 話, 165 話, 166 話 《풍수(風水)로 귀신막기》, 157 話 《사내애를 랍치한 귀신》, 487 話 《백두산에 나타난 거인과 같은 야차(夜叉)》는 눈에 안보이는 귀신이나 거인(巨人), 묘사한 곱같은 신기한 귀신형상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공경심을 상징했다.

《어우야담》 102 話~111 話 《불도와 귀신》은 불교의 중이 귀신을 다스리는 설화로 귀신은 불도의 앞을 가로막는 상징으로 다루어진 다.

#### 4.귀신형상의 다양한 상징성

《귀신담》의 귀신형상은 3가지 작품집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다는것을 알게 된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죽음과 어둠의 상징
- ② 신앙의 상징

③불안한 시대의 상징

④병의 상징

⑤자연에 대한 공경심의 상징

⑥신구대립이나 알룩의 상징

⑦저항자의 상징

⑧사람의 사악성의 상징

⑨사람의 량심의 상징

⑩사회적약자나 사회적소수자의 상징

《귀신담》은 아이들의 재미나는 읽을 거리로서의 가치뿐만아니라 그 귀신형상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하여 시대마다의 민중들의 무의식적상상과 함께 정치, 문화적인 금기에 대한 감추어진 저항의 의식을 읽을수 있는 열쇠가 될수도 있다.

《귀신담》에 그려지는 귀신은 종래 비과학적인 미신의 산물이라는 일면적인 인식때문에 연구대상이 못된다는 옳지 못한 견해가 있었다. 응당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전문학작품에 거듭 그려지는 귀신형상은 그 풍부한 상징적인 뜻을 생각할 때 무시되어서는 안될 대상이다.

사협결성 45돐 기념논문집

---

편집발행 在日本朝鮮社会科学者協會  
中央常任理事会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TEL/FAX 0 3 (3 8 1 6) 4 3 3 5  
e-Mail:sahyob@iris.ocn.ne.jp

편집발행 2 0 0 4 년 8 월 1 5 일

인 쇄 조 선 대 학 교 출 판 부

---